

# 中世語의 樣態·情感的 叙法에 대한 研究

高 永 根

(國文科 副教授)

##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感動法          |
| II. 原則法  | V. 總括—樣態·情感的 叙法— |
| III. 確認法 |                  |

## I. 머 리 말

中世語의 語尾構造體는 現代語보다 複雜한 面이 있어서 오랫동안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正體가 밝혀지지 못한 것이 많다. 이 곳에서는 先語末語尾에 依存하는 一聯의 叙法關聯의 形態素들을 가려 내어 使用上의 制約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究明함으로써 樣態·情感的 叙法範疇을 體系化해 보려고 한다.

## II. 原 則 法

2.1.0. 原則法이란 現代語에서 直說法과 回想法의 先語末語尾 “-느-”와 “-더-”에 後續하는 “-(으)니-”의 直接的 所屬형을 가리킨다. 現代語에는 “-니-, -ㄴ-” 등의 異形態 이의 語末語尾가 表面上으로 드러나지 않는 “-니” 등이 있으나 中世語는 그 形態가 비교적 單一하다.<sup>1)</sup> 곧 “-(으)니-”로 實現된다. 이밖에도 中世語에는 動詞語幹에 直接 統合되는 “-(으)니-”가 있는가 하면 現代語의 疑問法語尾 “-느냐, -(으)냐”의 直接的 遡及形인 “-느니여, -(으)니여”에서도 “-(으)니-”를 發見한다. 이 경우의 “-(으)니-”<sup>2)</sup>도 종전에는 原則法과 有關한 것으로 처리된 일이 있으나(後述), 構造·意味의 方面에서 差異가 현저하므로 原則法의 테두리에서 除外하기로 한다. “-(으)니-”의 析出에 필요한 語形을 動詞는 “-ㅎ-”로, 形容詞는 “-하”로, 指定詞는 “이-”로 대신하여 提示한다.<sup>3)</sup>

1) 現代語의 原則法에 대한 形態論의 分析과 異形態의 記述은 高永根(1965:§2.3) 참조.

2) 이 곳의 “-(으)니-”는 接續連結語尾의 “-(으)니” 및 冠形形 “-(으)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언급될 것이다.

3) 구체적 語形은 허용(1975:966-7)과 本稿의 §2.2.를 참조할 것, 그리고 “-(으)니-”의 分析에 필요한 다른 語形은 허용(1975:958-978)참조.

- (1a) 흐느니라, 흐느니, 흐느닝다, 흐느니이다  
 (1b) 하니라, 하니, 하니이다  
 (1c) 이니라, 이니, 이니이다  
 (2a) 흐더니라, 흐다니라, 흐더니, 흐더니이다  
 (2b) 하더니라, 하더니, 하더니이다  
 (2c) 이러니라, 이러니, 이러니이다.  
 (3) 흐리니라  
 (4) 흐리러니라  
 (5a) 흐거니라  
 (5b) 하거니라  
 (5c) 이어니라

2.1.1. (1a)의 “흐느니라”는 直說說明法 “흐느다”와 比較하면 “-니-”가 析出된다. 반말의 形式인 “흐느니”에서는 表面上으로 語末語尾와 化合되었고, ㅎ야씨體인 “흐느닝다”는 그 直說說明法 “흐느다”와의 比較에 의해서 쉽게 “-니-”가 分간된다. (1b)(1c)는 ㅎ리體의 直說說明法 “하다, 이라”와의 比較에 의하여 간단히 “-니-”가 析出된다. “하니, 이니”는 반말의 形式이고 ㅎ야씨體는 實在形이 발견되지 않으나 \*하닝다” \*이닝다”로 假想될 수 있다. 動詞에 統合될 때는 “-니-”가 直說法的 “-느-”에 後行하나 形容詞 및 指定詞에서는 語幹에 직접 統合된다. 이때에는 語幹에 받침이 있으면 媒介母音이 선택된다. 現代語와 차이가 없다(高永根 1965:§2.3.)

(2a)의 “흐더니라”도 (1a)와 같다. ㅎ리體의 回想說明法 “흐더라”와 比較하면 “-니-”가 分간된다. “흐다니라”는 主體가 화자일 때 선택되는 것이다. “흐다라”를 고려하면 “-니-”가 確認된다. “흐더니”는 반말體인데 (1a)의 “흐느니”와 같이 語末語尾가 밖으로 露出되지 않았다. (2b)(2c)에서도 回想法 “흐더라, 이러라”와 比較함으로써 “-니-”를 얻는다. “흐더니, 이러니”는 모두 반말體다. ㅎ야씨體는 “\*흐더닝다, \*하더닝다, \*이러닝다”로 假想된다.

(3)은 推測法 “흐리라”와 관련지음으로써 “-니-”가 析出된다. 文證되는 것은 ㅎ리體만 있으나 반말體 “\*흐리니”, ㅎ야씨體 및 ㅎ쇼씨體 “\*흐리닝다, \*흐리니이다”를 假定할 수 있다.

(4)는 推測回想法 “흐리러라”와 比較함으로써 “-니-”를 얻는다. 文證되는 것은 ㅎ리體뿐이나 (3)과 같이 假想形을 再構할 수 있다.

(5)는 杜詩諺解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語形이나 動詞, 形容詞, 指定詞에 걸친 用例가 두루 確認된다. 確認法 “흐거다. 하거다. 이어다”(後述)와 比較함으로써 “-니-”를 얻는다. 현재까지는 ㅎ리體만 確認되어 있으나 각 尊卑法에 걸쳐 假想形을 再構할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 原則法 語形을 尊卑法과 品詞 및 叙法에 따라 圖表로 提示한다. 假想形도 함께 提示하기로 한다.

叙法 品詞 尊卑法		直 說 法	回 想 法	推 測 法	推測回想法	確 認 法
		動 詞 形 容 詞 指 定 詞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 卑 法	動 詞 形 容 詞 指 定 詞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 卑 法	動 詞 形 容 詞 指 定 詞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 卑 法	動 詞 形 容 詞 指 定 詞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尊卑法

2.1.2. 앞에서 필자는 疑問法에 나타나는 “-(으)니-”를 原則法의 테두리에서 除外한다고 하였다. 허용(1975:882-891)에는 疑問法의 “-(으)니-”를 說明法의 “-(으)니-”와는 勿論, 冠形詞形의 “-(으)ㄴ”과 同質視하여 확정법(기정법)이라 부르고 있다.<sup>4)</sup> 3 가지 活用形에 나타나는 “-(으)니-”와 “-(으)ㄴ”을 構造 및 意味의 次元에서 구분하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앞에서 필자는 原則法의 形態素들을 분간해 낼 때 그것이 缺如된 直說說明法 “ㅎ는다”類의 形式과의 比較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곳에서도 같은 基準의 適用이 要望된다. “-(으)니-”가 挿入된 疑問法 形式을 들어 본다.

- (5a) ㅎ느너(ㅎ라體), ㅎ느닛가(ㅎ야씨體), ㅎ느니잇가(ㅎ쇼셔體), ㅎ느니(반말)
- (5b) 하(이)너(ㅎ라體), 하(이)니잇가(ㅎ쇼셔體), 하(이)니(반말)

(5a)는 動詞에, (5b)는 形容詞 및 指定詞에 “-(으)니-”가 각각 나타나는 것이다. (5)에 나타나는 “-(으)니-”가 有意的 單位로서의 資格을 가지려면 그것이 缺如된 다음의 語形이 存在해야 한다.

- (5a') \*ㅎ느어(\*ㅎ너), \*ㅎ느가, \*ㅎ느잇가
- (5b') \*하(이)어, \*하(이)잇가

그러나 이들 語形은 存在할 수도 없고 그 存在가 기대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疑問法의 “(으)니”는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가”와 統合되어 疑問法語尾를 形成하는 것으로

4) 허용(1975) 이외에도 疑問法의 “-(으)니-”를 說明法의 “-(으)니-와 同質視한 것으로는 나진서(1972), 李仁模(1976) 참조.

보아야 한다. ㅎ라體에서는 現代語의 “-(으)나”의 소급형 “-(으)너”가 큰 어려움 없이 확  
인된다. 그러나 ㅎ아씨體, ㅎ쇼서體에서는 尊卑法의 標識 “-스-, -잇-”이 介在하기 때문에  
疑問法語尾의 確立이 쉽지 않다. 不連續形態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ㅎ아씨, ㅎ쇼  
서體의 疑問法 語尾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sup>5)</sup>

(5c) “-니...가-”

반말에서는 “-니”가 疑問法語尾로 確認된다.

疑問法의 “니”가 有意的 單位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과 같은 構造的 側面뿐만 아니  
라 意味論的 次元에서도 保證된다(後述).

動詞에 직접 統合되는 “-(으)니-”도 原則法의 테두리에서 除外되어야 한다.

(5a) ㅎ나라(ㅎ라體), ㅎ니이다(ㅎ쇼서體), ㅎ니(반말)

(5b) 하나라(ㅎ라體), 하니이다(ㅎ쇼서體)

(5c) 이나라(ㅎ라體), 이니이다(ㅎ쇼서體)

앞서 確認한 原則法은 動詞의 경우 “-느-, -더-”에 後行하는 것인데 (5a)는 語幹에 직접  
통합된다. 意味도 달라서 “-느-, -더-”가 先行하는 (1a)의 “-니-”는 보통 原則的 意味를  
表示하는 데 대해서 (5a)는 事件時가 發話時에 先行하는 時相의 特性을 띠고 있다. 形容詞  
와 指定詞에서는 原則法과 構造的 差異가 없다. 形態가 同一하기 때문이다. (1b)(1c)와  
(5b)(5c)의 形態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意味로써 辨別의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다.<sup>6)</sup>

疑問法에 나타나는 “니”는 하나의 形態素의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5)의 說明法 語形들  
은 分離가 가능하다. (5a)는 “ㅎ다, ㅎ이다”, (5b)는 “하다, 하이다”, (5c)는 “이러, 이이  
다”와의 비교에 의해 분석이 용이해진다.

2.2.0. 前項의 圖表에서 提示한 叙法의 順序에 따라 각 경우에 나타나는 原則法 “-(으)  
니-”의 意味上的 特殊性을 究明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우리는 原則法이 나타나는 場面の  
特性和 그것이 表示하는 時相에도 留意할 것이다. 場面은 相關的 場面인 對話와 單獨的 場  
面인 獨白 및 地文을 意味한다<sup>7)</sup>. 對話는 “ ”로써, 獨白은 < >로써 각각 表示하고 地文  
과 詩文은 特別한 表示를 하지 않는다.

### 2.2.1. 直說法

5) 不連續形態(diskontinuierlich)의 代表的인 것은 獨逸語의 分離前綴動詞, 過去分離形態素이다.

Sie legt den Mantel ab (ablegen)

ge-hob-en, ge-sag-t

6) (5b)(5c)에 대한 意味는 본고에서도 論議되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中世語 叙法을 總括하는 자리에  
서 구체적으로 究明될 것이다.

7) 場面の 區分과 이를 기초로 한 現代語의 終結語尾의 體系化에 대하여는 高永根 (1976: I ;1974:  
§4.1.) 참조.

直說法이란 直說法 “-느-”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하느니라, 하니라, 이니라; 하느  
 념다; 하느니이다, 하니이다, 이니이다; 하느니, 하니, 이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1) “사르미 살면 주그미 이실찌 모로매 하느니라”(釋詳 11:36b)
- (2) “이 南堀入 仙人이 할 ㅅ를 길어 내니...그 ㅅ ㅅ 時節에 자취마다 蓮花 | 나느니이다”(釋詳  
 11:27b-28a)
- (3) “舍利弗아 너희 부텨 마를 고디 드르다 거츠디 아니하니라”(釋詳 13:47b)
- (4) “더 藥師瑠璃光如來入 十二微妙上願이시니라”(釋詳 9:10a)

위의 用例들은 相關의 場面에 쓰이기는 했어도 청자가 직접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用例  
 (1)은 五百太子가 연못가에 모여 앉아 물밑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하는 말이다. 일종의  
 集團 獨白이라 할 것이다. 사람이 늙는다는 사실을 發話時點에서 不變의인 사실로 파악하  
 여 서로 確認하는 것이다. (2)는 南堀仙人의 말이 움직일 때는 자취마다 연꽃이 생긴다는  
 것이다. 화자인 仙人은 이러한 사실을 發話時點에서 既定的인 것으로 파악하여 청자인 大  
 王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청자의 답변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通報行爲는 一方的 性格이  
 농후하다. (3)은 世尊이 부처의 법이 虛妄하지 아니함을 不變의인 것으로 파악하며 舍利弗  
 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텍스트상으로 볼때 사리불은 듣기만 하는 被動的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역시 一方的 通報行爲에 屬한다. (4)도 一方的 通報行爲다. 텍스트상으로 볼 때  
 부처가 文殊師利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1)~(4)의 用例에서 發話時點을 表示하는 것은 “-느-”이고 不變의 事實을 지시하는 것은  
 “-(으)니-”이다. “-(으)니-”에 의해 表示되는 事件時는 發話時와 無關하다. 이는 “-(으)  
 니-”의 指示內容이 不變의인 데에 緣由한다.

다음의 用例는 單獨의 場面에 나타나는 것이다.

- (5) 사롬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부매 便安의 ㅎ고지 ㅅ ㅅ 사르미니라(訓正)
- (6) 楞伽山이 南天竺 바를 ㅅ새 잇느니 神通 잇는 사르미사 가느니라(釋詳 6:43b)
- (7) 尸棄는 大梵天王入 일후미니 初禪三天에 위두하니라(釋詳 13:6b)
- (8) 식미 기론 모른 ㅅ마래 아니 그츨찌 내히 이리 바르래 가느니(龍歌 2)

用例(5)는 왕이 백성을 상대로 하는 말이다. 청자인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해  
 석해 둔다. (6)는 협주의 地文인데 楞伽山에 갈 수 있을 자격을 규정한 것이다. 작자가 독  
 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7)은 협주에 나오는 地文이다. 작자가 發話 當時 尺  
 棄가 初禪三天에 으뜸이라고 생각하여 독자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8)의 話者는 용비어천  
 가의 作者이고 청자는 王孫을 除外한 일반대중으로 짐작된다<sup>8)</sup>. 위의 用例는 (1)~(4)와는  
 달리 完全한 一方的 通報行爲다. 時相의 特徵은 (1)~(4)와 다른 점이 없다.

8) 용비어천가는 語尾가 반말과 ㅅ쇼서體로 되어 있다. 後者는 청자가 王孫임을 가리키고 前者는  
 一般大衆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兩方的 性格을 띤 對話의 用例다.

- (9) “엇메 쥬이라 흐느닛가” “이 사롬들히 다 神足이 自在하야 衆生의 福田이 드릴쥬 쥬이라 흐느  
닝다”(釋詳 6:18a-19a)  
 (10) “네 겨지비 고분니여” 對答호수보되 “고분니이다”(月釋 7:10b)  
 (11) 그 쓰리 무로되 “이 엇던 짜히잇가” 無毒이 對答호되 “이 大鐵圍山西面第一重海니이다”(月釋  
21:24b)

用例(9)는 護彌가 須達에게, (10)은 부처가 難陀에게, (11)은 聖女가 無毒에게 하는 말로서 完全한 兩方的 通報行爲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用例 (1)~(8)에서 나타났던 不變的 事實을 일깨워 주는 用法을 쉽게 看取할 수 없다. \*흐닝다<sup>9)</sup>, 고분이다, …重海이다”로 바꾸어도 좋은 單純한 直說說明法이 아닌가 한다. 특히 (9)(10)의 “흐느닝다, 고분니이다”가 不變的 用法이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用法과 無關하다는 것은 그 물음이 단순한 直說疑問法 (§2.1.2.)이라는 점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참조). 이러한 用法은 存在詞 “있다”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 (12) (婆羅門) 그 쏘드려 무로되 “그똥 아바니미 잇느니잇가” (그 쏘) 對答호되 “잇느니이다” (釋詳 6:14b)

疑問法의 “잇느니잇가”를 고려할 때 “잇느니이다”는 單純한 直說說明法에 지나지 못한다. 이는 (10)의 “고분니이다”와 併行된다. “있다”는 보통 直說說明法으로 “-느니라”를 取하지 마는 “-는다”로 붙는 일이 있어서 “잇느니라”의 直說疑問法의 用法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 (13) (부례) “네 이제…보느니 이제 어되 잇느뇨” (阿難) “世尊하…이제 祇隨林은 實로 堂 밧겨 잇느이다”(楞嚴 1:48a)

用例(12)을 고려하면 마땅히 “잇느니이다”로 되어야 할 것이다. 引用動詞로 쓰이는 “호다”에서도 그런 사실을 발견한다.

- (14) 값안 사르닐 眷屬이라 흐느니라(釋詳 6:5b)

- (14') 夫妻하야 사로몬 헝더기 조터 몬하야 輪回를 벗디 몬하는 根源일씨 죽사릿 因緣이라 흐니라  
(月釋 1:12a)

(14)가 (14')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함은 “-느니라”가 直說說明法임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한다.<sup>10)</sup>

이로써 우리는 兩方的 通報行爲에 나타나는 直說法的 用法도 確認하였다. 그러면 위의 두 가지 通報行爲에 나타나는 “-(으)니-”의 意味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그것

9) “\*흐닝다”는 호야체體의 直說說明法의 假想形이다. 金忠會(1972:41) 참조.

10) 이 문제는 不定法을 다루는 마당에서 구체적으로 論議될 것이다.

은 “-(으)니-”가 缺如된 活用形과의 比較에 의하여 解明되어야 한다. 먼저 一方的 通報행위의 성격이 짙은 用例 (1)~(4)부터 검토하자.

- (1')...모로매 늙는다 cf. (1)
- (2')...蓮花 | 나늙이다 cf. (2)
- (3')...거즈니 아니하다 cf. (3)
- (4')...上願이시다. cf. (4)

이들은 모두 直說法의 形態다. “-(으)니-가 쓰인 文脈에 이런 活用形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같은 狀況에 나타나는 같은 品詞의 같은 活用形의 例文과 比較할 수밖에 없다.

- (15) “瞿曇이 弟子 | 두리여 묻 오늙이다”(釋詳 6:29b)
- (16) “닐곱히 너무 오라나”(月釋 7:2a)
- (17) “너와 내 同氣라”(楞嚴 1:41a)
- (18) “사르미 목수미 無常호 거시라”(月釋 7:2a)

用例(15)는 六師가 王에게, (16)은 阿那律이 跋提에게, (18)은 부처가 阿難에게 각각 하는 말로서 완전한 兩方的 通報行爲다. 直說說明法에도 一方的 陳述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보편적인 것은 兩方的 陳述이다. 用例(15)를 (1)(2)와 비교하면 事件時는 發話時와 일치한다. 그런데 (1)(2)의 事件時는 發話時와 無關하였다. (16)(17)은 화자가 事件時와 發話時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그런데 (3)(4)는 (1)과 같이 事件時는 發話時와 無關하였다. (18)은 “거시니라”로 바꾸어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直說說明法으로도 原則的 意味를 表示할 수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單獨의 場面の 用例들도 “-(으)니-가 缺如된 語形과의 比較를 거쳐야 한다.

- (5') ...썩락미라 cf. (5)
- (6') ...가늙다 cf. (6)
- (7') ...위두하다 cf. (7)
- (8') ...\*가늨<sup>11)</sup> cf. (8)

(8)의 “-(으)니-” 缺如形은 存在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 없고 (5')~(7')의 형태를 取하는 用例들은 (1')~(4')의 實例 (15)~(18)과 같이 兩方的 通報性格이 더해지고 대신 原則的 用法이 缺如될 것이 기대된다.

앞에서 필자는 “-(으)니-”에는 一方的 通報機能이 파악됨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것은 화자가 사태를 파악하는 態度와 有關하다. 사태를 原則的인 것으로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意圖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通報行爲가 一方的일 수

11) 반말의 直說說明法은 主體가 話者일 때 선택되는 “하늨”만 있다. 이에 類推하여 “\*하늨”를 假想할 수 있다. “하늨”의 구체적 用例는 다음과 같다.

天籠도 해 모드며 人鬼도 하나 數 업슬씨 오닐 묻 솔늨(月千 其26)

밖에 없다. 用例 (1)~(4)가 一方的 通報의 기능을 띠게 된 이유라 하겠다. 한편 用例 (15)~(17)에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어떤 要素도 찾을 수 없다. 사태를 단순하게 아무런 意圖의 介入없이 陳述하고 있다. 따라서 “-(으)니-”가 특별히 插入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으)니-”에 反映되는 화자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기준으로 樣態性 副詞의 插入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樣態性(Modalität)이란 話者가 命題의 事實性(Realität) 여부를 判斷하는 것이다.<sup>12)</sup> “-(으)니-”가 插入된 (1)~(8)에는 命題를 강조하거나 確認하는 부사의 補充이 가능하다. (1)에는 “모로매”가 이미 쓰였고 (2)(6)(8)에는 “꼭, 틀림없이”, (3)(7)에는 “원래부터”, (4)(5)에는 “진실로”등의 부사를 插入할 수 있다. 한편 (15)~(17)에는 그러한 副詞의 補充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인다. (18)에는 “원래”와 같은 부사와의 共存 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 用例에는 原則의 用法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9)~(12)의 用例는 原則의 用法과는 無關한 單純한 直說說明法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強調·確認의 意味와 관련된 부사의 補充이 쉽지 않다. 이는 이때의 “-(으)니-”가 단순한 直說說明法을 뒷받침하는 根據가 된다.

### 2.2.2. 回想法

回想法이라 함은 回想法 “-더-”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하더니라, 하더니라, 이러니라; 하더니이다, 하더니이다, 이러니이다; 하더니, 하더니, 이러니”를 가리킨다. 用例가 혼치 않아서 直說法과 같이 包括的 記述을 하기가 어렵다.

(1) “비근 法王이시니 轉法을 조차 하더시니이다”(釋詳 24:37b)

(2) “無病이 第一이러시니 늠 爲하야 훈 句法도 니르신 지기 업고 상내 말 업더시니이다”(釋詳 24:39b)

用例(1)은 尊者가 王에게 자기가 經驗한 사리불의 과거행적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2)도 尊者가 왕에게 溥拘羅의 과거의 행적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둘다 典型的 對話다. 直說法에서는 發話當時 화자가 사태를 不變的·既定的으로 파악한 것을 상대방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었는데 回想法에서는 不變的·既定的인 것은 두드러지지 않고 화자의 經驗事項을 청자에게 일러 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意味가 더 浮刻된다. 地文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 그 때 父王과 小王들이 牛頭栴檀香 남자로 太子 스르서고 寶塔 계여 供養하더시니라(月釋 21:219b-220a)

(4) 몸 더 사리불 모도오딕…金 부를 니넌 十八億 사리미 나 몰더니라(釋詳 6:28a)

用例(3)은 本文의 地文이다. 話者(작자)의 직접적 經驗이 아니고 文獻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根據해서 자기가 직접 經驗한 것처럼 陳述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4)는 작자가 독자에게 북을 쳐서 사람을 모우는 舍衛國의 법을 해설한 것인데 (1)과 같이

12) 樣態性 부사에 대하여는 Helbig & Buscha (1975:449) 참조. 이는 또 최현배(1961:584)의 斷定的 話式副詞에 해당한다.



작자의 직접적 경험이라기보다 文獻에 근거한 陳述로서 독자를 일깨우는 것이다.

“ㅎ더니라”가 표시하는 意味는 “-(으)니-”가 缺如된 다음과 같은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 說明되어야 한다.

- (1') ...ㅎ더시이다 cf. (1)
- (2') ...엿더시이다 cf. (2)
- (3') ...供養ㅎ더시다 cf. (3)
- (4') ...몰더라 cf. (4)

(1')(2')에서는 단순한 回想의 意味만 파악되고 (3')(4')에서는 回想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과거사실의 진술의 기능만 파악된다. (3')(4')에 해당하는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쁘테 몰 마즌 이리 다 願마터 도외더라(月釋 10:30b)

위의 用例는 化人の 神通力에 의해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說明한 地文인데 化자의 經驗과는 無關하며 작자가 過去사실을 단순히 叙述한 것이다. 이때는 不定說明法 “-(으)니라”로도 바꿀 수 있다.

다음은 主體가 話者일 때 나타나는 “ㅎ다니라”의 例文이다.

- (6) “부테 方便力으로 三乘教를 必要문 衆生이 히나게 ㅎ다니라”(=...令得이러니라)(法華 1:158ab)
- (7) “내...方便力으로 權으로 이 域을 핑마켓다니라”(口訣文省略)(法華 3:196)

用例(6)(7)은 一方的 通報行爲의 性格이 짙다. (6)은 부처가 舍利弗에게 하는 말이다. 口訣文에는 “-러니라”인데 “-다니라”로 된 것이 特異하다(허웅 1975:793). 이해 과정에서 생겨난 構文上的 차이라 하겠다. (7)은 道師가 대중들에게 하는 말이다. (6)(7) 다 화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함으로써 청자를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意味는 “-(으)니-”가 缺如된 다음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 究明될 수 있는 것이다.

- (6') ...ㅎ다라 cf. (6)
- (7') ...핑마켓다라 cf. (7)

現代語에서는 “-더니라”가 主體가 화자일 때는 선택되지 않는데(高永根 1965:§3.3.2.),<sup>13)</sup> 中世語에서는 “-다니라”로 交替됨으로써 1人稱과 呼應된다. 이는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라”가 1人稱일 때 선택되는 語尾이기 때문이다(許雄 1958).

回想法에서는 直說法만큼 樣態性 부사가 자연스럽게 補充되지 않는다. 回想法에서는 原則의 用法이 많이 줄어들고 상대방을 일깨우는 面이 浮刻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2.2.3. 推測法

13) 現代語에서도 “-더니라”가 先語末語尾 “-었-”과 統合되면 1人稱과의 共存이 가능하다(高永根 1965:§3.3.2.).

내가 거기 먼저 갔더니라

推測法이란 推測法 “-(으)리-”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하리니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1) “諸法이 幻 존하니 幻 존함도 得니 몰하리니라”(口訣文省略)(圓覺下 2-2:11ab)  
 (2) 周室이 다시 興起하오미 맛당하니 孔門을 당다이 必로미 몰하리니라(=周室宜中興 孔門未應棄)(杜諺 6:21b)

用例(1)은 “入佛境界紀”에서 引用한 말이다. 狀況을 正確히 짐작하기 어려우나 부처의 설법의 한 구절이 아닌가 한다. (2)는 작자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로 보고자 한다. (1)의 사건시는 발화시와 대체로 일치하고 (2)는 後行하지 않나 한다. 둘다 一方的 通報行爲의 性格이 매우 강하다. 推測法에 나타나는 “-(으)니-”의 意味는 그것이 缺如된 다음과 같은 語形의 意味와 比較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 (1') ...得니 몰하리라 cf. (1)  
 (2') 몰하리라 cf. (2)

推測法에 나타나는 “-(으)니-”는 발화시 내지 발화시 이후에 일어날 일을 推定的으로 일깨워 주는 것으로 解釋된다. 樣態性 부사는 “-(으)리-”와 “-(으)니-”의 성격으로 보아 “아마, 틀림없이 (꼭)” 정도가 자연스러워 보인다.<sup>14)</sup>

現代語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推測法의 “-(으)리-”와 “-(으)니-”의 統合이다. 현대어에서는 原則法의 先語末語尾 “-(으)니-”는 未來表示의 先語末語尾 “-겠-”과는 어울리지 못한다(高永根 1965:§3.3.4.).

#### 2.2.4. 推測回想法

推測回想法이란 圖表의 實在形 “하리니라”를 대상으로 한다. 앞에서 우리는 回想法과 推測法에서는 直說法에서 目擊되던 原則的 用法은 減少되고 청자를 일깨워주는 화자의 意圖가 浮刻됨을 確認하였다. 推測回想法에서도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1) <부텃 일후미 大覺이샤...부텃의 와 문즈뵈면 당다이 간 짜홀 안르시리니라>(月釋 21:21a)  
 (2) “내 아랫 뉘에 이 經을 바다 니니 닐그며 외오며 늑드려 니르디 안하더든...三菩提를 썰리 得디 몰하리니라”(釋詳 19:34b)

(1)은 “念호더”다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聖女의 獨白으로 간주된다. (2)는 부처가 得大勢에게 하는 말인데 一方的 通報行爲의 성격이 짙다. 得大勢는 듣기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리니라”는 統辭構造의 如何에 따라 叙實法과 叙想法의 기능을 표시하기도 한다.<sup>15)</sup> 用例(1)은 事件時가 經驗時 이후임을 表示하는 데 대해서 (2)는 과거 사실의 假想을 나타낸다. 假想의 意味를 떨 때는 統辭構造에도 영향을 미쳐서 보통 “-더든”

14) 우리의 例에서는 “-(으)리니라”가 否定的 構文에 나타난다. 用例가 적어 무어라 斷定할 수 없지만 否定構文이 “-니-”의 插入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주목의 대상이 된다. 後日을 期約한다.

15) 李仁模(1976:144-159)에는 “-리니라”의 意味를 叙實法과 叙想法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과 共存한다(~~~참조). 推測回想法 “-(으)리러라”에 이런 用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으)니-가 “-더-”와 결합하면 統辭構造를 바꾸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確認할 수 있다.<sup>16)</sup> “-(으)리러니라”의 意味는 “-(으)니”가 缺如된 “-(으)리러라”와의 比較를 통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1') ...아르시러러라 cf. (1)

(2') ...得디 불흐리러라 cf. (2)

統辭構造가 變化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으)리러니라”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경험 당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음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앞의 回想法, 推測法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原則法 “-(으)니-”가 推測法 “-(으)리-”와 共存하는 例를 目擊한다 (cf. §2.2.3.).

### 2.2.5. 確認法

確認法의 先語末語尾 “-거-”에 통합되는 “-(으)니-”의 用法도 앞서 나온 叙法에 後行하는 “-(으)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

(1) 넷 위 안헤 고지 절로 뱃고 봄나래 새 도로 늘어니라(原詩省略) (杜諺 8:34b)

(2) 故園에 든곤 謂水 | 흐르느니 이제 고지 正히 하거니라(原詩省略) (杜諺 15:31a)

(3) 秦 紗혜는 當당이 새 드리어니라(原詩省略) (杜諺 6:11b)

用例가 모두 杜詩諺解에서만 보인다(前述). (1)은 고향에도 봄을 맞아 꽃이 피고 새가 다시 날아온다는 것을 確認·強調하는 것이다. (2)는 杜甫가 봄을 맞아 고향의 경물을 생각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꽃이 많이 피었을 것이라고 다짐함으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닌가 한다. (3)도 진나라의 옛땅에는 새달이 났으리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詩文이어서 精確한 상황을 알기 힘들지만 “-(으)니-”가 缺如된 다음 語形과 비교해 보자.

(1') ...늘어다 cf. (1)

(2') ...하거다 cf. (2)

(3') ...드리어다 cf. (3)

(1')~(3')이 사태를 確定的으로 파악하는 데 대해서 (§3.2.1.), (1)~(3)은 그것을 既定 事實화하여 청자의 주의를 끄는 데 力點이 주어지지 는 것으로 보인다. 確認法의 用例에도 다른 叙法과 같이 樣態性 부사 “틀림없이, 반드시” 등이 보충될 수 있다. (2)(3)의 “正히, 當당이”는 그런 觀點에서 해석될 수 있다.

2.3.0. 中世語의 原則法을 現代語의 그것과 관련시켜 가며 使用面의 特性을 살펴보고 意味上의 문제를 화자의 사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시켜 가며 究明해 보았다. 要點을 整理하

16) 感動法의 “-리랴다”도 반드시 “-더든”과 共存한다. 자세한 것은 §4.2.5. 참조.

고 이 문제를 다룬 종래의 견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2.3.1.

1. 原則法은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推測回想法, 確認法을 바탕으로 하여 成立된다. 現代語는 直說法과 回想法에서만 나타난다.

2. 原則法은 一方的 通報機能을 遂行하는 일이 많다.

3. 原則法의 事件時는 보통 發話時와 無關하다.

4. 原則法은 화자가 사태를 不變的·既定的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청자에게 알림으로써 주의가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이끌고 싶어할 때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2. 필자는 先語末語尾 “-ㄴ-, -더-” 등에 後行하는 “-(으)니-”를 대상으로 原則法을 세워 보았지만 中世語 文法研究를 더듬어 볼 때 이에 관련된 문제의 展開 樣相이 단순하지 않다. 최근의 李仁模(1976)을 除外한 모든 論者들은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으)니-”를 同質的으로 看做하여 冠形形의 “-(으)ㄴ”과 關連시켜 왔다.

劉昌惇(1964a:357)은 終結語尾에서 나타나는 “-(으)니-”를 語末連結語尾 “-(으)니”에서 轉用된 것이라 보고 既然形이라고 불렀다. 나진석(1971:245-257)은 說明法, 疑問法 및 冠形形에 나타나는 “-(으)니-, -(으)ㄴ”을 [니]로 代表하고 本質的 意味를 [끝남]으로 잡았으며 다른 先語末語尾 뒤에 나타나는 “-니-”는 時制의 意味가 喪失되는 것으로 說明하였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2.1.0.), 許雄(1975:882-891)에는 說明法, 疑問法의 “-(으)니-”뿐만 아니라 疑問法과 冠形形의 “-(으)ㄴ”, 그의 이른바 1人稱表示의 先語末語尾 “-과-”를 總括하여 「확정법」(기정법)으로 처리하였다. 나진석은 時制 關連 要素로 본 데 대해 그는 叙法의 要素로 처리한 것이다. 語幹에 직접 統合될 때는 확정법의 意味를 表示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으)ㄴ”과 “-(으)니-”가 다른 先語末語尾 아래 쓰일 때는 기능의 變化를 가져 온다고 한다. “-(으)ㄴ”이 “-ㄴ-, -더-, -리-” 등의 先語末語尾 아래 쓰일 때는 본디의 뜻을 잃어 버리며 “-(으)니-”가 위의 先語末語尾 아래 쓰이면 뜻이 변져 나가는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 同音的인 형태들을 일단은 同質視하되 환경에 따라 意味가 달라진다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실 이때까지는 構造的 내지 機能上의 差異點을 밝히려 했다가보다 형태상의 類似性에 依支하여 意味上의 共通性을 抽出하려고 시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비판한 것이 李仁模(1976:181-246)이다. 動詞에 직접 統合되는 “-(으)니-”는 과거시제, 先語末語尾 아래에 오는 “-니-”는 定立法으로 처리하였다. 그의 定立法은 우리의 原則法을 가리키고 과거시제는 우리의 不定法에서 論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疑問法의 “(으)니”를 原則法의 “-(으)니-”와 同質視했다든지 說明법 “-(으)니라”에 의해 나타나는 單純한 直說法的 功能을 가려내지 못한 흠들을 지니고 있다. 필자의 原則法은 疑問法의

“(으)나-”와 用言에 바로 統合되는 直說法的 “-(으)나-”를 除外한, 原則적으로 “-나-, -더-” 등의 先語末語尾에 後行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2.3.3.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確認法을 바탕으로 成立되었던 中世語의 原則法이 直說法, 回想法을 바탕으로 成立되어 있는 現代語의 原則法으로 변모·발전과정은 다르지 않는다. 中世語에서도 推測法, 推測回想法, 確認法은 그 분포가 치우쳐 있으며(圖表참조), 推測法은 用例조차 흔치 못하다는 것을 언급해 둔다.

### III. 確 認 法

3.1.0. 確認法이란 現代語에서 直說法과, 推測法의 先語末語尾 “-(으)라-”를 바탕으로 成立하는 “-것/엇-”과 形態 및 意味上的 相關性을 띤 形態를 가리킨다.<sup>1)</sup> 필자가 이곳에서 確認法이라 부르는 것은 종전의 中世語 文法에서 「強勢」 및 「強調」(河野六郎 1950), 「假想」(李崇寧 1961a), 「完了」(李承旭 1967)의 意味가 부여되어 왔던 先語末語尾 “-거/어-”를 말한다. “거”와 “어”는 統合 語幹의 종류에 따라 交替되는 기능만 表示할 뿐, 統辭·意味上的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sup>2)</sup> 確認法에는 또 종전의 中世語 文法에서 「기정법」(확정법)의 한 形態로 처리되어오던 “-과/와-”(허용 1962)도 包括될 수 있다.

종전의 中世語 文法에서는 “-거/어-” 형태에 대한 形態論的 配慮가 철저히 못했다. 確認法 形態素를 分별하는 기준의 설정없이 모든 환경에 나타나는 “거/어”를 同質視하였었다. 統合關係(syntagmatic relation)로나 系列關係(paradigmatic relation)로나 比較의 對象이 되지 않는 語形은 確認法의 形態素로 보지 않는다. 單位 確立에 필요한 語形을 “ㅎ-”로써 提示한다.<sup>3)</sup> “-거/어-”는 語幹 “오(來)-” 다음에는 “나”로 交替된다.<sup>4)</sup> 이를 위하여 특별히 “오-”도 든다.<sup>5)</sup> 각 語形의 끝의 [ ]속에 高永根(1980)에서 붙인 번호를 넣어 참고하게 한다.

- (1a) ㅎ거다/ㅎ야다/오나다[2], ㅎ얀더[4]; ㅎ얀다[7], ㅎ알까[8]; ㅎ거라/ㅎ야라/오나라[9]; ㅎ거니<sup>1</sup>2/ ㅎ야니<sup>1</sup>2[14, 15], ㅎ야머[18], ㅎ진맨, ㅎ진뎌; ㅎ진/ㅎ얀/오난[21], ㅎ알[22]
- (1b) ㅎ거니라[1], ㅎ거니여[5], ㅎ거니오/ㅎ야니오[6]
- (2) ㅎ리어다/ㅎ려다[23], ㅎ려니오[24]; ㅎ리어니<sup>1</sup>/ㅎ려니<sup>1</sup>[26], ㅎ려니<sup>2</sup>[27], ㅎ리어너[30]
- (3) ㅎ거리랏다[32], ㅎ야리로다[33]; ㅎ야리아[34]; ㅎ야리마르논[35]
- (4) ㅎ과라

1) 現代語의 確認法에 대한 形態論的 分析 및 異形態의 記述은 高永根(1965:§2.5.) 참조.  
 2) “-거/어-”의 選擇條件에 관하여는 高永根(1980)참조.  
 3) 구체적 語形은 §3.2.1.; §3.2.2. 및 허용(1975:971-4)과 高永根(1980) 참조. 그리고 確認法의 분석에 필요한 다른 語形은 허용(1975:958-978) 참조.  
 4) “나”가 “거/어”와 기능이 같다는 데 대해서는 유창돈(1963) 참조.  
 5) 필자가 제시하는 語形은 非他動詞와 他動詞의 標識를 다 갖춘 相關項目도 있고 그렇지 않은 無關項目도 있다. 前者에는 假想形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實在形만 들었다. 자세한 것은 高永根(1980) 참조.

3.1.1. (1a)의 “ $\text{ㅎ}$ 거다,  $\text{ㅎ}$ 야다, 오나라”는 한편으로는 不定法 “ $\text{ㅎ}$ 다”와, 한편으로는 直說法 “ $\text{ㅎ}$ 는다”, 回想法 “ $\text{ㅎ}$ 더라”와의 比較를 통하여 “-거/어/나-”<sup>6)</sup>가 分離된다. 위의 語形은  $\text{ㅎ}$ 라體이지만  $\text{ㅎ}$ 쇼서體인 “ $\text{ㅎ}$ 거이다,  $\text{ㅎ}$ 야이다”도 實在한다. 그러나 “\*오나이다”는 文證되지 않는다. 이들 세 語形의  $\text{ㅎ}$ 야체體 “\* $\text{ㅎ}$ 쟁다,  $\text{ㅎ}$ 앵다”<sup>7)</sup> 등을 假想할 수 있다. “ $\text{ㅎ}$ 안더”는 “ $\text{ㅎ}$ 더”와 比較하면 “-어-”가 쉽사리 떨어져 나온다. “ $\text{ㅎ}$ 안다”는 한편으로는 “-어-”가 缺如된 “ $\text{ㅎ}$ 다”와, 한편으로는 直說疑問法 “ $\text{ㅎ}$ 는다”, 回想疑問法 “ $\text{ㅎ}$ 던다”와 각각 比較함으로써 “-어-”가 얻어진다. “ $\text{ㅎ}$ 알까”는 “ $\text{ㅎ}$ 을까”를 고려함으로써 “-어-”가 析出된다. “ $\text{ㅎ}$ 거라/ $\text{ㅎ}$ 야라/오나라”는 “ $\text{ㅎ}$ 라, 오라”를 고려하면 “-거/어/나-”가 쉽게 분간된다. “ $\text{ㅎ}$ 알”은 “ $\text{ㅎ}$ ”과 比較하면 “-어-”가 쉽게 분리된다.

“ $\text{ㅎ}$ 거니<sup>1</sup>/ $\text{ㅎ}$ 야니<sup>1</sup>”은 반드시 疑問法과 共存하므로 分析이 어려운, 한 單位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거/어-”가 缺如된 “ $\text{ㅎ}$ 니”만으로도 反語法의 구성을 이룰 수 있으므로 “-거/어-”의 析出이 가능하다. “ $\text{ㅎ}$ 거니<sup>2</sup>/ $\text{ㅎ}$ 야니<sup>2</sup>”는 설명법과 共存하는 것인데 “ $\text{ㅎ}$ 니”만으로도 그런 구성이 가능하니 分析될 수 있다. “ $\text{ㅎ}$ 야며”는 “ $\text{ㅎ}$ 며”와, “ $\text{ㅎ}$ 진덴”은 “ $\text{ㅎ}$ 덴”과 比較함으로써 “-어-”와 “-거-”를 얻는다. “ $\text{ㅎ}$ 진덴”은 “ $\text{ㅎ}$ 던덴”과 比較함으로써 “-거-”가 析出된다. “ $\text{ㅎ}$ 진/ $\text{ㅎ}$ 안/오난”은 “ $\text{ㅎ}$ 거다/ $\text{ㅎ}$ 야다/오나라”와 軌를 같이한다. 한편으로는 不定法 “ $\text{ㅎ}$ ”, 한편으로는 直說法 “ $\text{ㅎ}$ 는”, 回想法 “ $\text{ㅎ}$ 던”, 推測法 “ $\text{ㅎ}$ 린”을 참조함으로써 “-거/어/나-”가 析出된다.

(1b)의 “ $\text{ㅎ}$ 거니라”는 한편으로는 不定法 “ $\text{ㅎ}$ 니라”, 한편으로는 直說原則法 “ $\text{ㅎ}$ 느니라”, 回想原則法 “ $\text{ㅎ}$ 더니라”와 比較함으로써 “-거-”가 析出된다. 이 語形의  $\text{ㅎ}$ 야체體 “\* $\text{ㅎ}$ 거닝다”,  $\text{ㅎ}$ 쇼서體 “\* $\text{ㅎ}$ 거니이다”의 再構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text{ㅎ}$ 거니여”는 한편으로는 不定法 “ $\text{ㅎ}$ 니여”, 한편으로는 直說法 “ $\text{ㅎ}$ 느니여”, 回想法 “ $\text{ㅎ}$ 더니여”와의 比較를 통해 “-거-”가 析出된다. “ $\text{ㅎ}$ 거니오/ $\text{ㅎ}$ 야니오”도 不定疑問法 “ $\text{ㅎ}$ 니오”, 直說疑問法 “ $\text{ㅎ}$ 느니오”, 回想疑問法 “ $\text{ㅎ}$ 더니오”를 참조함으로써 “-거/어-”를 얻는다.

(2)의 “ $\text{ㅎ}$ 리어다/ $\text{ㅎ}$ 려다”는 “-거/어-”가 缺如된 “ $\text{ㅎ}$ 리라”와 比較함으로써 “-거/어-”가 析出되고 또 “ $\text{ㅎ}$ 눗다,  $\text{ㅎ}$ 닷다”<sup>8)</sup>와의 對照에 의해서도 “-거/어-”를 確認할 수 있다. “ $\text{ㅎ}$ 려뇨”는 “\* $\text{ㅎ}$ 리니오”의 補充形 “ $\text{ㅎ}$ 리오”와의 比較에 의해 “-어-”가 析出된다. “ $\text{ㅎ}$ 리어니<sup>1</sup>/ $\text{ㅎ}$ 려니<sup>1</sup>”도 앞의 (1a)의 “ $\text{ㅎ}$ 거니<sup>1</sup>/ $\text{ㅎ}$ 야니<sup>1</sup>”와 같이 反語法의 구성에서 나타난다. “-거/어-”를 “-니”로부터 분리해 내기 쉽지 않다. “-(으)리니”가 反語法의 구성에 쓰이는 例를 찾지 못한 이상 분석을 保留해야 하겠으나 “ $\text{ㅎ}$ 거니<sup>1</sup>/ $\text{ㅎ}$ 야니<sup>1</sup>”를 좇아 일단 分析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text{ㅎ}$ 려니”는 敘述形과 共存하는 것이다. “ $\text{ㅎ}$ 려니”와 比較하여 “-어-”를 析出하기로 한

6) “-어-”는 “ $\text{ㅎ}$ 야다”形을 代表하는 形態로 사용한다.

7) 確認法의  $\text{ㅎ}$ 야체體의 再構는 이미 金忠會(1972)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8) 이들 語形에 대한 분석은 §4.1.1. 참조.

9) 疑問法 語形의 體系化는 다른 자리에서 시도될 것이다. 이 문제는 國語形態素의 分析限界 및 記述 方式을 검토하는 자리에서도 논의될 것이다.

다. “하리어머”는 “하리며”와의 비교에 의하여 “-거-”가 確認된다.

(3)의 “하야리로다”는 “하리로다”를, “하거러랸다”는 “하러랸다”를, “하야리아”는 “하리아”를 각각 고려함으로써 “-어/거-”가 析出된다. “하야리마르논”은 “어”가 缺如된 “\*하리마르논”이 文證되지 아니하므로, “-어-”의 分析이 망설여진다. “-어-”가 “-리-”에 先行한다는 (3)의 語形 전체의 均衡을 고려하면 “-어”의 析出이 무리하지 않다.

(4)의 “하과라”의 “-과라”는 語幹이 “근과 副音[1] 및 指定詞로 되어 있을 때는 “-와라”로 交替된다(허용 1962, 1975:796). 그 制約條件은 形態論의이다. 위의 語形은 하라體인데 하쇼셔體 “하과이다”도 實在한다. 하야셔體는 實在하지 않으므로 “\*하평다”로 再構할 수밖에 없다.

중전에는 “하과라”를 不定法의 “하나라”와 짝을 지음으로써 「기정법」(확정법)을 수립하고 主體가 話者일 때에 나타난다는 統辭的 特性만 지적하는 정도에서 그쳤다(許雄 1962). 필자는 우선 構造的 側面에서 “하과라”를 “하거다/하야다”와 짝지어 보려고 한다. 音相上으로 보더라도 “-과라”는 “-(으)나라”보다 “-거/어다”와 더 類似하다. 이런 觀點에 설 때 “-과라”는 “-거/어-”에 話者 表示의 先語末語尾 “-오/우-”가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回想法 “-더라”에 “-오/우-”가 붙으면 “-다라”로 형태 바꿈하는 것과 併行된다. 後者は 化合(amalgame)현상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高永根 1978:30), 이곳의 “-과라”도 그러한 方式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速斷을 不許한다.<sup>10)</sup> “-거다/-어다”는 動詞의 種類에 따라 선택되지만 “-과라”는 그런 점을 보여 주지 않는다. 他動詞와 非他動詞에 두루 統合된다<sup>11)</sup>

- ① 他動詞 統合例: (1) 便安호물 得과라(得하과라)(月釋 14:77b), (2) 오놀사 스시 언과라(月釋 7:9a), (3) 빗교물 릇과라(初朴上: 44b),
- ② 自動詞 統合例: (1) 渡度에 시러 니름와라(=…至…)(法華 2:23a), (2) 우리…하마 得호미 닐 의와라(法華 2:251a)
- ③ 形容詞 統合例: (1) 우리는…차반도 히브르과이다(初老下:33b), (2) 내 이제 원히 즐겹과라(法華:137b)

“-거/어-”와, 話者 標識의 “-오/우-”의 統合으로 解釋되는 “-과라”가 다른 화자 표지의 “-오/우-” 統合形과 均衡있는 體系를 形成하기 위하여는 接續의 連結語尾에서의 存在를 確認해야 한다. 화자 標識의 “-오/우-”는 終結語尾와 連結語尾에 나타나기 때문이다(허용 1958, 1962). 終結語尾에서의 “-과-”를 고려하면 “\*-과니”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實在하지 않는다. 대신 필자는 “-가니”를 이 자리에 메꾸고자 한다. “-가니”는 반드시 主體가 話者일 때 선택된다(허용 1975:801-2).<sup>12)</sup> “-과라, -가니”를 포함하여 화자 표지의 語

10) 이 문제는 國語形態素의 分析限界 및 記述方式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11) 아래 用例의 “-관더”는 “-(으)너더”와 비교하면 “과”가 析出된다. 이것이 우리의 確認法의 “-과-”와 같은지는 설불리 斷定할 수 없다.

아가아가…물 분까 하더니 오놀날…아기와 서르 보관더(月釋 23:87a)

12) 허용(1975:800-804)에는 1人稱에 呼應되는 “가”系統의 語尾로서 “-가니오, -가노, -가니와, -간마르”를 들고 있다.

尾들의 活用表를 提示한다.

- a. 호라, 호니 : 호다, 호니
- b. 호노라, 호노니 : 호는다, 호느니
- c. 호리라, 호리니 : 호리라 호리니
- d. 호다라, 호다니 : 호더라, 호더니
- e. 호과라, 호가니 : 호거/야/나다, 호거/어/나니

지금까지 고찰한 確認法의 先語末語尾 “-거/어/나-”와 “-과-”를 統合하여 語末語尾와 叙法에 따라 圖表로 提示한다. 終結語尾의 경우 尊卑法은 省略한다. 다른 곳에서 試圖한 假想形(高永根 1980)도 함께 보인다.

語末語尾 叙法	說 明 法	疑 問 法	命 令 法	接 續	冠 形 形
不 定 法	호거다/호야다/ 오나다 호과라 호거니라 호안더	*호전다/호안다/ *오나다 *호야니여/호거니 여 *호거니오/호야니 오	호거라/호야라/ 오나라	호거니/호야니/ 오나니/ 호가니 호야며	호전/호안/오 난 호알/*호걸/* 오날
推 測 法	호리어다/호려다 *호거리로다/호야 리로다 호거리랴다/*호 야리랴다	*호리어니오/호려 뇨 *호거리야/호야리 야 *호걸까/호알까/ *오날까	.	호리어니/*호려니 호리어며/*호려며 호야리마른는/*호 거리마른는	

推測法 가운데는 “호야리로다, 호거리랴다, 호야리야”와 같이 確認法에 後行하는 것이 있다. 이들은 推測法이 確認法에 先行하는 나머지 形式과 相補的 關係에 놓여 있다. 그 순서를 바꾸는 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호리어로다(cf. 호야리로다), \*호리어랴다(cf. 호야리랴다), \*호리어야(cf. 호야리야)

\*호거리라(cf. 호리어다), \*호야리라(cf. 호려다), \*호야리뇨(cf. 호려뇨)...

3.1.2. 統合關係와 系列關係를 기준으로 하여 確認法 形態素를 定立해 보았다. 이에 따라 종래의 強調表示의 形態素를 가진 것으로 처리되어 왔던 대부분의 語尾들은 우리의 確認法의 領域에서 除外되는 셈이다. 그러면 나머지 “거/어/나”를 先接한 語尾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옳을까? 그러한 語尾들을 別稿(高永根 1980)에서 붙인 번호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본다. 實在形만 提示한다.

3. 호거(가)지라/호야지라/오나지라, 11. 호야씨, 12. 호야지, 13. 호거늘/호야늘, 16. 호거니와/호야니와/오나니와, 17. 호거든/호야든/오나든, 19. 호거사/호야사, 20. 호전(간)마른/호안마른/오날마른, 25. 호리어늘/호려늘, 28. 호리어니와/호려니와, 29. 호리어든, 31. 호리언마른/호련마른

25, 28, 29, 31의 네 項目은 13, 16, 17, 20의 語形에 推測法의 先語末語尾 “-(으)리-”가



先接한 것이므로 특별히 論議할 필요가 없다. 네 語形을 除外한 나머지 語形들은 統合關係로나 系列關係로 볼 때 比較의 대상이 되는 語形이 없다. 이를테면 “3. ㅎ거지라”와 “19. ㅎ거사”는 “거”가 缺如된 “\*ㅎ지라”와 “\*ㅎ사”도 없고, [ㅎ—지라], [ㅎ—사] 환경에 “거”를 대신한 “\*ㅎ느지라”, “\*ㅎ더지라”도 存在하지 않는다. 또 “13. ㅎ거늘”과 “20. \*ㅎ진마룬”도 “거”가 缺如된 “\*ㅎ늘”과 “\*ㅎ마룬”이 없고 다른 형태가 대치된 “\*ㅎ느늘, ㅎ더늘”, “\*ㅎ느마룬, \*ㅎ더마룬”이 存在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어/나”를 先接한 위의 語形들은 분석이 어려운 單一形態素로 보게 된다.<sup>13)</sup>

중래의 中世語의 文法에서 위의 語形에 나타나는 “거/어/나”를 有意的인 單位로 認定한 것은 주로 이들 要素 뒤에 尊敬의 先語末語尾 “-(으)시-”가 插入되기 때문이었다. 또 形態素 識別에 대한 正確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도 중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으)시-”의 插入은 앞의 原則法에서 目擊된 尊卑法 標識 “읏, ㅅ”이 疑問法 “니…가”에 插入되는 일과 같은 것이다 (§2.1.2.). 곧 “ㅎ거시늘/ㅎ야시늘”과 “ㅎ거신마룬/ㅎ야신마룬”의 “-(으)시-”의 插入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거…늘/-어…늘”  
“-거…니마룬/-어…니마룬”

疑問法語尾와 같이 不連續形態로 보지 않을 수 없다.<sup>14)</sup>

相關性을 띠고 있는 “거/어/나”系列 語尾의 一次的 기능은 統合用言의 종류를 表示하는 것이고 統合關係나 系列關係를 띤 “거/어/나”系 語尾는 確認法의 기능도 同時에 遂行하는 것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3.2.0. 앞에서 體系化했던 叙法의 順序에 따라 確認法 形態素들의 意味上的 特殊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原則法과 같이 이것이 나타나는 場面の 制約과 이에 의해 表示되는 時相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한다.

### 3.2.1. 不定法

不定法이라 함은 어떠한 時制關聯要素를 先接하지 않은, 圖表의 實在形 “ㅎ거다/ㅎ야다/오나다, ㅎ과라, ㅎ거니라, ㅎ야다; ㅎ야나, ㅎ거니아; ㅎ거라/ㅎ야라/오나라; ㅎ거니/ㅎ야니/오나니, ㅎ가니, ㅎ야며; ㅎ진/ㅎ얀/오난, ㅎ얏”을 가리킨다.

- (1) <내 本心 求호 ㅅ슴 업다니 오늘 이 寶藏이 自然히 니를어다>(口訣文省略)(法華 2:226b)
- (2) <王ㅅ 中엿 尊호신 王이 업스시니 나라의 威神을 일허다>(月釋 10:9b)
- (3) “오늘 世尊 알피 문 듣줍더닐 듣줍고 다 疑惑에 벼러디거이다”(口訣文省略)(法華 2:50-51)

13) 필자는 이미 現代語의 “거”系列의 語尾를 分析할 때 이러한 方法으로써 접근한 일이 있다(高永根 1975)

14) 앞의 疑問法語尾와 이곳의 “거/어” 先接語尾들은 不連續形態로 보게 되면 尊卑法 標識 “ㅅ, 읏”과 尊敬法 標識 “-(으)시-”는 接腰辭 (infix)의 性格을 띠게 된다. 이는 李秉根 교수와의 對話에서 學論된 것인데 이곳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4) “네 머그라 우리밥도 머거다”(初老上:22a)

위의 用例들은 모두 [-상태성]의 動作類의 用言들이다. (1)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獨白하는 것이다.<sup>15)</sup> 主體는 “寶藏”으로서 3人稱이다. (2)는 諸釋들이 淨班王의 命終함을 보고 땅을 치고 슬퍼하며 하는 말로서 獨白이라 할수 있다. (3)은 舍利弗이 부처에게 하는 말인데 一方的 通報行爲의 性格이 강하다. 부처는 듣기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主體는 일반 사람들로 想定된다. (4)는 典型的 對話의 用例다. 위의 例들의 事件時는 發話時 直前으로 判斷된다. 統合用言의 動作類가 [-상태성]이기도 하려니와 發話時 關聯의 副詞 “오늘” 등과 共起하고 있기 때문이다.

(5) <安樂國이 는 아미를 보라 가니 어미도 몬 보아 시르미 더욱 긴거다>

(6) <내 상네 이 아미를 思念호되 불 주리 업다니 문득 제 오니 내 願에 甚히 맞거다>(月釋13:16a)

(7) <내 천량 庫藏을 이제 맞출 디 잇거다>(月釋 13:15a)

(8) <문득 來를 바도니 마지 분별 업거다>(永嘉下:167b)

(9) <아들과 여희 디 쉬나 디 히어다>(月釋 13:9b)

(10) “내…天帝入 命을 받조와 와 擁護 컨 디 오라거다”(楞嚴 7:62a)

위의 用例는 [+상태성]의 動作類를 用言이다. (5)는 소치는 아이의 노래 가운데의 一節로서 獨白이다. (6)은 돈많은 長者가 師子座에서 아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하는 말로서 (7)에 계속되는 말이기도 하다. (8)은 大師의 答書로서 一方的 通報行爲의 性格이 짙다. (9)는 “아미 每樣 아미를 念호되”가 先行되어 있으므로 明白한 獨白이다. (10)은 神인이 律師에게 하는 말로서 對話上의 用例다. 위의 用例들의 主體는 모두 3人稱이다(~~~참조). (6)만이 外顯되지 않았는데 “아들 오는 일”로 主體를 想定할 수 있다. 위의 用例들의 時制는 모두 發話時와 일치한다. 이는 統合用言의 動作類의 性格이 [+상태성]이기 때문이다.

위의 用例에 나타나는 “-거/어/나-”의 意味는 어떻게 究明되어야 할까? 먼저 이들 形態素가 缺如된 不定法 語形과의 比較에 依存해야 한다.

(11) “내 億劫에 顛倒想을 슬우샤 僧祇를 디나디 아니 하야서 法身을 언게 하시이다”(楞嚴3:111b-112a)

(12) “도다 내 阿僧祇劫을 디나가 부터 노의야 號를 釋迦牟尼라 하리라”(月釋 1:15a)

(13) “모솔히 멀면 乞食 호디 어렵고 하 갓가면 조디 몰하리니 이 東山이 甚히 맞갑다”(釋詳6:23b-24a)

(14) “내 오늘 이 衆이 노의야 가지 니피 업고 純히 正法 實이 잇다(口訣文省略)(法華 1:173a)

(15) “내 부터와 하야 母子 드윈 後로 즐거부미 오늘 곤하 니 업다”(釋詳 11:2b)

(16) “사르미 목수미 無常호 거시라”(月釋 7:2a)

(17) “닐굽히 너무 오라다”(月釋 7:2a)

主體가 3人稱인 점과 事件時가 發話時에 先行하거나 또는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거/어/나-” 插入形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確認法 形態素가 介入된 (1)~(10)用例의 대부분은 獨

15) 用例(1)은 같은 佛經을 底本으로 한 月印釋譜에는 다음과 같이 表現되어 있다.

내 本來 求를 디스미 업다니 오늘 寶藏이 自然히 오나다(月釋 13:32b)

白과 같은 單獨의 場面에 쓰이기 때문에 通報行爲가 매우 一方의이었다. 그러나(11)~(17) 用例은 正常的의 對話의 場面에 나타나므로 그 通報行爲는 兩方의이다. “-거/어/나-”의 一方的의 通報特性은 이의 指示內容과 有關한 것이 아닌가 한다.

화자가 사태를 確信性 있게 파악하여 그것을 스스로 다짐할 때 “-거/어/나-”가 선택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原則法은 상대방을 타이르거나 일깨우는 것이었는데 確認法은 화자 스스로를 일깨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確認法 用例에 一方的의 通報機能이 절대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곳에서도 原則法에서와 같이 樣態副詞를 援用함으로써 性格을 明白히 해 보고자 한다. 用例(1)~(4)에는 “틀림없이” 등의 부사의 插入이 가능해 보인다. 이에 대응되는 (11)은 阿難이 부처에게 하는 말로 首楞嚴王의 과거의 行蹟을 客觀的으로 단순하게 陳述하는 것인데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부사의 插入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5)~(10)의 用例의 意味를 (11)~(17)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

(5)는 安樂國太子說話의 一節로서 “-거-”의 意味 究明에 援用되던 用例이다.<sup>16)</sup> 이 예는 安樂國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정상을 머리속에 그려 “시름 김거다”라고 한 것이니 “깊을 것이다”라는 假想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崔泰榮 1965). 意味 解釋에는 잘못이 없으나 構造的 樣相을 고려하지 못했다. 安樂國이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마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름이 깊은 것임을 스스로 確認하는 것이니 “기프리어다” 내지 “기프려다”와 같이 推測確認法의 形式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後述).<sup>17)</sup> 두 語形 가운데서 어느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話者(여기서는 목동인)에게 달려 있다. 이곳에서도 “틀림없이” 등의 부사의 插入이 가능하다. 한편 (12)는 (5)와 비교할 때 화자의 그런 태도를 파악할 수 없다. 오히려 “도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sup>18)</sup> “普光佛이 讚歎하야 니르샤디”와 같이 작자[譯者]의 情感에 가득찬 말에 의해 導入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은 (13), (7)은 (14), (8)은 (15), (9)는 (16), (10)은 (17)의 同根語幹 내지 同一語幹에 “-거-”가 붙은 것이다. 前者는 話者의 사태에 대한 태도가 매우 硬化되어 있어 틀림없이, 만드시” 등의 樣態性 부사를 補充하여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後者는 화자의 그러한 態度가 有形的의 要素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樣態 부사의 插入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어렵지 않은가 한다. (8)(9)(10)은 統合語幹의 動作類가 [+상태성]인데도 불구하고 [-상태성]의 動作類를 띠게 되어 완료적 의미를 표시하는 것은 “-거-”가 지닌 意味特性과 有關하지 않나 한다. (8)은 “걱정이 없어졌다”, (9)는 “50여년이 되었다”, (10)은 “오래되었다”

16) 崔泰榮(1965:125-129)에 설화내용이 要約되어 있다. 이 예는 月印千江之曲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安樂國이는 아버지를 보러 가니 어미 몸 보아 시름 김거다(其 226, 月釋 8:87b)

17) [하리-다] 환경에서는 “거/어”의 선택이 不規則하므로 不不型에 所屬시켰다(高永根 1980). 따라서 “기프리어다, 기프려다”가 다 가능하다.

18) “-도다”의 情感的 意味에 대하여는 §4.2.7 참조.

로 해석된다.

“-거/어다”의 意味는 이와 系列關係를 이루고 있는, 統辭·意味上的 特性이 비슷한 不定法 “-(으)니-”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8) “네 아비 함마 주그니라”(月釋 17:21)

위의 用例는 아비의 使者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 主體는 3人稱으로서 “-거/어다”의 動詞 統合例 (1)~(4)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는 獨白 아닌 對話의 例이며 事件時도 發話時 直前이 아닌 먼 과거이거니와 화자의 사태에 대한 태도도 매우 단순하다는 점에서 “-거/어-”와는 그 기능과 意味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필자는 構造的 觀點에서 “-거/어-”와 “-과-”를 統合한 바 있다 (§3.1.1.). 使用面과 意味上的 側面에서 統合論을 展開해 볼까 한다.

(19) <오늘<sup>1</sup>사 스이 일과라>(月釋 7:9a)

(20) <내 이제 흰히 줄집과라>(口訣文省略) (法華 2:137b)

(21) “부테 大衆에 나를 받들기 부테 드외리라 니르시니 이 곤혼 法音을 듣조고 疑悔를 함마 덜와 이다”(法華 2:24a)

(22) “오늘 이 모든 大會와 또 내 다 함마 보습과이다”(口訣文省略) (法華 4:169a)

(23) “又기 못과라”(初朴上: 44a)

用例(19)는 難隨가 기뻐하며 스스로 하는 말로서 獨白이며, (20)은 長者가 아들이 火宅에서 나와서 네거리에 住함을 보고 찬탄하는 말로서 역시 獨白이다. (21)은 사리불이 부처 앞에서 偈로써 사되는 말로서 거의 一方的 通報行爲다. (22) 역시 一方的 特性이 강하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偈로써 사되는 말이다. (23)은 이발사와 주고 받은 말로서 典型的 對話의 場面에서 나타난 것이다. 獨白과 같은 單獨의 場面에서 나타나며 相關의 場面이라 하여도 一方的 通報行爲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앞의 “-거/어다”와 같다고 할 수 있다. 時制에 있어서도 共通性을 발견한다. (19)(21)(22)(23)은 [-상태성]의 用言에 統合된 것으로 事件時는 發話時 直前이다. (20)은 [+상태성]의 動作類를 表示하는 것으로 事件時와 發話時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라”의 意味는 이와 統辭의 特性이 같고 동시에 確認法 系統의 形態素가 缺如된 不定法 “-오/우라”와 비교하는 것이 좋다.

(24) “산것 주기며 허러 구짓는 두 業으로 報를 受호라”(月釋 21:56ab)

(25) “내 저비 이 싫 저기 受苦호미 이러호니 이런 因緣으로 道理를 得호라”(月釋 10:26a)

(26) “내 부텃 弟子 |로니 諸漏 업수를 得호야 죽사릿 큰 저부물 이제 다 버서나이다”(비서나오히다)(釋詳 24:16b)

(27) “내 난 後로 曠心호 저 업소라”(月釋 21:216a)

대체로 對話와 같은 相關의 場面에 나타나고 時制에서는 統合用言이 [-상태성]을 띤

(24)(25)는 事件時가 發話時보다 훨씬 앞서 있다. (27)은 “없다”의 動作類의 特性 때문에 事件時는 發話時와 일치한다. (26)은 시간부사 “이제” 등으로 미루어 보면 事件時는 發話時 直前인 것으로 判斷된다. (19)를 (24)와 비교해 보면 前者는 화자가 오늘에야 비로소 틈을 얻게 되었음을 스스로 確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틀림없이” 등의 樣態부사의 插入이 가능하다. 後者는 그러한 要素가 缺如된 단순한 叙述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부사의 사용은 어려워 보인다. (21)(22)(23)도 (25)(26)과 비교하면 그런 意味가 파악된다. (20)은 統合作用이 [+상대성]을 띠고 있는데 (27)과 비교하면 화자가 發話時의 사태를 즐겁게 생각하여 이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뉘히”같은 부사를 화자의 이런 태도와 관련된 樣態 부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과-”가 使用 및 意味面에서도 “-거/어-”에 충분히 統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니라”는 “-거-”가 缺如된 “-(으)니라”와의 비교에 의해 意味가 究明되어야 한다. 兩者는 統辭構造面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28) 냇 위 안헤 고지 질로 펫고 붉나래 새 도로 늘어나라(原詩省略)(杜諺 8:34b)
- (29) 衡陽애 조릿 비디 다 能히 늘거니라(原詩省略)(杜諺 22:16b)
- (30) 神農도 마초매 아디 몬흐니라(原詩省略)(杜諺 15:8a)
- (31) 山林에 갈 자취 머디 아니흐니라(杜諺 15:8b)

用例가 모두 杜詩諺解에서 나타나므로 “-거-”가 缺如된 用例도 여기서 뽑았다. (28)(29)에 대한 설명은 이미 原則法을 論議하는 자리에서 詳說하였으므로 (§2.2.5.), 반복하지 않는다. (28)(29)가 사태를 確定的으로 파악하여 독자의 주의를 일깨운다고 하면 (30)(31)은 그런 사정이 介入되지 않은 單純한 叙述이라고 할 것이다.

“-언더”는 “-(으)너더”와 比較된다.

- (32) “도홀써 오닐날 果報 ]어 釋迦牟尼佛 弟子入 牢獄 보스반더”(月釋 23:82b)
- (33) “般若 거론 르디 이를 너르신더”(般若心經:8)

(32)는 獄卒이 目連에게 찬탄하며 하는 말이다. (33)과 比較하면 前者에는 화자의 確信性이 투영되어 있어 양태부사의 插入이 가능한데 後者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2人稱 疑問法과 非2人稱疑問法에서도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意味가 究明되어야 한다.

- (34) “닐췌트 스시에 네 快樂을 전췌트하안다”(釋詳 24:28ab)
- (35) “하닐 마르치시며 짜 마르치샤를 아란다 모르논다”(金三 2:60a)
- (36) “네 엇디 안다”(月釋 23:74a)

“-안다”는 화자가 청자에게 確信性 있는 답변을 구할 때 쓰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34)는 왕이 使者를 시켜 善容에게 묻는 말이다. 선용의 답변이 “보도 몰흐며 듣도 몰흐거니 므스기 快樂호렷리잇고”와 같이 反語形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선용에 대한 물음이

어느 정도 硬化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5)는 (36)과 비교할 때 時制上的 差異는 전혀 없다. (34)와 함께 完了的 意味가 파악되는 것은 “-어-”에 있지 않고 疑問法 構成 “-니다”에 있다. (35)의 “모르는다”가 “\*몰란다”가 안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화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疑問法에 나타나는 “-거/어-”는 感動法의 “-스-”과 비슷한 점이 많다(後述).

- (37) “羹에 네 소니 레어너”(口訣文省略)(內訓 1:18a)  
 (38) “부네 涅槃하시니여”(釋詳 23:20b)  
 (39) <엇던 절초로 이세 오나뇨>(法華 2:239a)  
 (40) “이 智慧 업슨 比丘 | 어드러서 오뇨”(釋詳 19:30b)

用例 (37)(39)는 非2人稱 疑問法의 “-거/어-” 統合例다. (37)은 對話例로서 (38)과 비교 할때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점을 구할 수밖에 없으며 (39)는 獨白의 例로서 (40)이 比較의 對象이 된다. 주의할 것은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의문법의 “-거/어-” 統合例가 대부분 獨白에서 나타나는 점이다. 우리는 說明法에서 그런 경향을 발견했는데 이는 “-거/어-”의 意味와 직접 관련된다.

다음은 命令法에 나타나는 確認法이다.

- (41) “比丘들하 부텃 양즈를 보아라”(釋詳 23:13a)  
 (42) “너희들히 至極호 誠心으로 내 紫磨黃金色身을 보라”(釋詳 23:11b)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의 硬化에서 차이를 찾을 수밖에 없다. 현대어는 “하라” 形態가 間接命令으로 주로 쓰이나(高永根 1976), 중세어에서는 “호라” 形態가 直接命令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화자의 態도와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接續의 連結語尾에 나타나는 用例다.

- (43) “本來 제 귀음 얼거니 엇메 모로매 뫼리오”(口訣文省略)(金三 2:65b)  
 (44) “네 아드리 孝道호고 허물 업스니 어드리 내디료”(月釋 2:6a)

(44)는 (43)의 “-거니”의 “-거-” 缺如形이다. “-거니”는 마땅한 例를 아직 찾지 못했다. 두 例를 비교해 볼때 화자의 사태에 대한 態도의 硬化에서 “-거-”의 意味를 찾을 수밖에 없다.

- (45) 가즐비건뎌 사르미 바비 너다가 楓를 보고 도주긴가 너거며 모던 귀쳐신가 너겨 두리여 헤든  
 다가…(釋詳 11:34b)  
 (46) 마장 殷重히 너기스분며 奇特히 너기습는 막수물 니르와다(月釋 10:45b)

用例(45)는 接續의 “-며”가 “-어-”를 取한 것인데 “-어-”가 缺如된 (46)의 “너기스분며”와 비교된다. 둘다 地文인데 작자의 事態 내지 命題에 대한 태도와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다.

冠形形에서도 “-거/어/나-”가 缺如된 語形과의 比較에 依支해야 한다.

- (47) 아들 봄부터 오난 디 하마 스물히니(口訣文省略)(法華 2:245b)
- (48) 그제로 오신 디 손지 오라디 묻거지든(口訣文省略)(法華 5:119ab)
- (49) 아드리 宰相 드외언 디 三年이로되(口訣文省略)(內訓 3:25-26)
- (50) 내 부터와 하야 母子 드외 後로(月釋 21:7a)
- (51) 그 中에 호 長者는 우리 父母 오라건 아로리러니(月釋 10:24b)
- (52) 디나건 오란 劫에...(月釋 1:51b)
- (53) 四空處 | 業果色 업수물 아랄디로다(月釋 1:36b)
- (54) 보미 이 봄 아년 둘 받드기 아를 디라 하시니(楞嚴 2:74b)

用例(47)은 (48)과, (49)는 (50)과, (51)은 (52)와, (53)은 (54)와 각각 비교된다. “-거/어/나-” 插入形은 缺如形에 比해 硬化된 화자의 태도가 엿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 3.2.2. 推測法

推測法이란 推測法 “-(으)리-”가 先·後行된, 圖表的 實在形 “하리어다/하려다, 하야리로다, 하거리랴다; 하려노, 하야리아, 하알까; 하리어니, 하리어며, 하야리마르노”을 가리킨다.

- (1) <하마 비 오려다>(月釋 10:85b)
- (2) <(如來) 涅槃에 드로려 하시니 이리드록 설뿐져 世間엿 누니 업스려다(釋詳 11:11b)
- (3) “닐하 오늬나래 덕시라 바로리어다”(月釋 8:102a)
- (4) “아가 大慈悲 우니는 鴛鴦鳥와 功德修行호는 이네 물과 成等正覺 나래사 받드기 마조 보리어나”(月釋 8:101b)
- (5) “그리내 머리서 즈비 오난마를 如來人 舍利는 물 나오리어다”(釋詳 23:54b)
- (6) “내 조호 헝더갈 닷가 일업는 道理를 求호노니 죽사릿 因緣을 든디 물 호려다”(月釋1:11b)

앞의 “-거/어/나다”와 같이 “-(으)리어다/--(으)려다”에서도 대부분 獨白 내지 一方的 陳述에서 나타나고 있다. (1)은 現代語의 “오려다”의 直接的 遞及形으로서 비 올 것을 예측·확인하는 일반적 獨白表現이다. (2)는 중생들이 부처의 열반소식을 듣고 獨白하는 것이다. (3)은 원앙부인이 長者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의 一節로서 陳述行爲는 거의 一方的이다. (4)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 답변을 전제하지 않은 一方的 通報行爲다. (5)는 拘尸國王이 偈를 지어 신하에게 대답하는 말로서 一方的 獨白의 性格이 매우 짙다. 이 텍스트의 前後가 呼號體로 되어 있는 점은 이 말의 獨白의 性格을 잘 뒷받침한다. (6)은 典型的 對話 속의 用例로서 선해가 구이하게 하는 말이다. 위의 用例의 주체는 대부분 非1人稱이다(~~~ 참조). (3)은 主體가 2人稱이고 (~~~ 참조), (4)는 원앙조와 화자 자신의 “몸”을 뭉뚱그린 것이 主體로 간주된다(~~~ 참조). (5)(6)은 主體가 화자로 간주되는데 화자 標識의 “-오/우-”가 介入된 데 연유하지 않나 한다. (5)는 “\*나오오리어다”의 축약형이고 (6)은 “-오-”의 插入形으로 볼 수 있는 例다(허용1975:286). 事件時는 發話時에 後行할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다. (2)와 같이 [+상태성]의 動作類에 統合될 때는 發話時와 일치하는 일이 많아 보인다.

위에 나타나는 確認法은 “-거/어-”가 缺如된 推測法의 用例과 比較함으로써 그 意味가 究明되어야 한다.

- (7) “如來 오닐 밤 中에 無餘涅槃에 들리라”(釋詳 13:34a)
- (8) 모디 더룬 가켓니 마로리라(蒙法:26a)
- (9) “나웃…五百齋 아니 하단디면…地獄에 드로리라”(月釋 23:75b)

“-거/어-”가 缺如된 推測法의 語形 가운데서 對話, 곧 兩方의 陳述의 例를 뽑아 보았다. (1)(4)는 主體가 3人稱인 점에서 (7)과 공통된다. 前者는 發話時 이후에 일어날 일을 화자가 確信을 가지고 推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는 “틀림없이” 등의 양태부사의 插入이 가능하다. (4)에는 “반드기”가 들어 있어 그러한 意味의 설정이 妥當함을 立證하고 있다. (7)은 日月燈明佛이 대중에게 確定的인 發話時 이후의 일을 거의 一方的으로 進술하는 것이다. “몰하리라” 등의 語形이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거/어”가 缺如되어 있다. 이 형태소의 선택여부는 어디까지나 화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3)과 (8)은 主體가 2人稱인 점과 “-오/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兩者가 다 화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前者는 화자의 確信性 있는 태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6)은 (9)와 主體가 1人稱인 점에서 共通되는데 前者에는 화자의 確信性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가 쓰였으나 後者에는 그러한 태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가 缺如되었고 “반드시”와 같은 樣態 부사의 補充도 또한 許容되지 않는다.

“-어리로다”와 “-거리랴다”는 用例가 하나뿐이나, “-거/어-”가 缺如된 “-리로다, -리랴다”가 存在하므로 意味 파악이 가능하다.

- (10) 眞實로 그스기 化ᄒ시나 닐어리로다(月釋 13:44b)
- (11) 莊ᄒᄒ 양지 머ᄒ니 아니호미 돈는 ᄒᄒ ᄒᄒ ᄒᄒ로 가ᄒ비니 ᄒᄒᄒ리로다(口訣文省略)(楞嚴 2:5b)
- (12) 살어리 살어리랴다 靑山에 살어리랴다(樂章歌詞, 靑山別曲)
- (13) 그딴 나그내를 사랑타 아니 하던들 그뎀 나래 쏘 시르물 더으리랴다(原詩省略)(杜諺 15:31b)

(10)(11)은 둘다 협주의 地文에 나타난다. (10)이 화자의 硬化된 사태파악과 관련되어 있다면 (11)은 그것이 缺如된 사태파악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도 (13)과 비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0)(12)에는 “틀림없이” 등의 樣態性 부사의 插入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 (으)려뇨, -어리아, -얼까”는 “-어-”가 缺如된 “\*(으)리…뇨, -(으)리아, -(으)리까”와의 比較에 依存해야 한다. “\*(으)리…뇨”는 실제로는 “-리오”로 나타난다(前述).

- (14) <늘너브리 무리아 ᄒ리너 뉘아 能리 對答ᄒ려뇨>(釋詳 13:15a)
- (15) “네 브즈러니 세 머늘 請ᄒ거니 어드리 아니 니르료”(釋詳 13:46a)
- (16) <어루 크게 맛나다 아니 닐어리여>(口訣文省略)(金三 3:5a)
- (17) “ᄒᄒᄒ 주글 내어니 子孫을 議論ᄒ리여”(月釋 1:7a)



(18) “어더 보수받까”(釋詳 24:43b)

(19) 天縱之才를 그러샤 아수볼까(龍歌 43)

用例(18)만 除外하고는 모두 修辭疑問으로 쓰였다. (14)와 (15), (16)과 (17)을 비교해 보면 前者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강한 確信感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8)은 그러한 確信감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다.

“- (으)리어니, - (으)리어며, - 어리마르논”은 “- (으)리니, - (으)리며, \* - (으)리마르논”과의 비교에 依存해야 한다.

(20) 三輪이 부여 괴와함면 三界에 나리어니 罪福이 잇메 내게 보트리오(南明上: 63a)

(21) 이 善女人이 …女人 잇는 世界에 다시 나디 아니호리니 호닐며 쯔 女身호미썸너(月釋 21:86b)

(22) 프히여본 이리 이셔도 고죽줄 미수모로 더 부터를 念호야 恭敬호수본면 다 버서나리어며…버서나리라(釋詳 9:24-25)

(23) 불마면 보미 업스리며(楞嚴 3:94ab)

(20)을 (21)과 비교해 보면 화자의 사태에 대한 確信性和 관련되어 있으며 (22)도 (23)을 고려하면 그런 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태부사의 補充으로써 意味의 妥當性を 검증할 수 있다.

3.3.0. 中世語의 確認法을 現代語의 그것과 관련시키면서 形態論的 觀點에서 單位를 劃定하고 使用面의 制約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究明해 보았다. 要點을 정리하고 이 問題를 다룬 既往의 業績들의 所論을 評價해 보기로 한다.

### 3.3.1.

1. “-거/어/나-”는 統合적으로나 系列的으로 相關關係를 맺고 있는 환경에서만 確認法으로 기능하며 確認法은 不定法과 推測法을 바탕으로 成立된다. 現代語는 直說法과 推測法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記述한 바 있다(高永根 1965:§2.5.).

2. 確認法은 單獨的 場面과 一方的 通報機能이 우세한 相關的 場面에서 많이 나타난다.

3. 確認法의 事件時는, 不定法의 경우는 統合用言의 動作類에 따라 決定되고 推測法에서는 推測法 “- (으)리-”에 영향을 받아 發話時 이후가 될 적이 많다.

4. 確認法은 화자가 사태를 確信性 있게 파악하여 스스로 다지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介入될 때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3.3.2. 우리는 앞에서 “-거/어/나-”를 둘러 싸고 強調 및 強勢, 假想, 完了의 세 가지 解釋이 試圖되어 왔다고 했다(§3.3.1.). 이들 解釋에서 看取되는 한결같은 잘못된 統合적으로나 系列的으로 하등의 相關性이 없는, 단순한 用言標識에 지나지 않는 “거/어/나”를

19) 許雄(1955:163)에는 “-거니”를 중심으로 強調의 意味가 부여되어 있고, 劉昌惇(1963)에는 과거나 假想이 아닌 強調일 뿐이라고 하였다. 허용(1975:923-956)에는 우리의 感動法과 합쳐서 강조·명탄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有意的 單位로 認定한 접이다.

“-거/어-”를 強勢로 解釋한 것은 河野六郎(1950)이 가장 包括的이다.<sup>19)</sup> 그는 史的 觀點에서 “-어-”의 起源을 “-거-”에 두고 그것을 *intensive stem*이라 부르면서 “-거-”가 缺如된 語形과의 비교를 통하여 強勢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거-”에 의해 表示되는 과거와 같은 時相的 意味는 動詞語幹의 意味에 연유하는 것임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統合的으로나 系列的으로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거든” 등의 分析을 深化시킨 것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거/어-”에 假想의 意味를 준것은 李崇寧(1961:193-195, 233-243)이다.<sup>20)</sup> 그는 連結語尾에 나타나는 “-거/어-”를 假想法으로 파악하고 이를 終結語尾에 擴大·適用하였다. 假想이란 連結語尾 자체나 “히려다, 흐려다”와 같이 “-(으)리-”와의 統合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잘못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거/어-”를 時制 關聯의 要素로 본 것은 李承旭(1967)과 나진석(1971:257-280)이다. 前者는 “-거/어-”를 未完了相을 표시한다는 回想法의 “-더-”와의 對立關係에서 完了相으로 처리하였다. 後者는 現代어의 確認法 “-거-”와 관련을 지으면서 끝남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所論에서 주목할 것은 필자가 確認法의 形態素로 統合한 “-과-”가 “-거-”系統의 語形 일람표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完了나 끝남이란 河野六郎(1950)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動作類의 어떠함에 따라 決定되는 것으로 “-거/어-”의 屬性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要件대 지금까지의 이 方面에 대한 연구가 많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큰 成果가 없었던 것은 形態의 表面上의 同一性에 얽매어 구조적 相關性을 올바르게 認識하지 못한 데 그 原因이 있다. 또 現代語와의 관련성이 거의 고려되지 못했던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立脚할 때 종래에 意見이 구구하던 “-거/어/나-”는 確認法表示의 形態素라 함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3.3.3. 不定法과 推測法을 바탕으로 說明法, 疑問法, 命令法, 少數의 接續 連結語尾 및 冠形形에 걸쳐 분포되어 있던 確認法體系가 說明法에서만 命脈을 유지하고 있는 現代語의 體系에 이르는 變遷과정은 다루지 않는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現代語의 “-것/엇-”의 生成 절차이다. 中世語는 “-거/어/나-”인데 오늘날에 와서 “-것/엇-”이 된 것은 確認法과 意味 機能에 있어 共有部分이 많은 感動法 “-웃-/-웃-, -스-”(後述)과의 語形上의 混淆에서 빚어 진 것이 아닌가 한다. 杜詩諺解의 다음 例는 바로 그러한 現象의 萌芽로 보인다.

(24) 牛斗星 北 拉 오 물 흐 갓 잇 니 흐 겠 다(21:42a)

構造的 觀點에 선다면 (24)의 형태 “-것-”은 確認法 “-거-”가 感動法 “-웃-/-웃-, -스-”을 바탕으로 成立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 崔泰榮(1965)와 安秉禧(1967:210)도 비슷한 觀點에서 假想으로 處理하였다.

#### IV. 感 動 法

4.1.0. 現代語의 感嘆法 語尾에는 “-구나, -어라” 등의 몇 系列이 있어 그 意味를 밝히고 相關關係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sup>1)</sup> 中世語도 現代語 못지 않은 複雜性을 띠고 있어서 그것은 體系 있게 설명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테면 허웅(1975)에는 「강조·영탄법」이라 하여 일곱 系列의 語形이 提示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形態論的 配慮를 深化시키고 使用面의 制約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밝힐 수단 있다면 복잡해 보이는 이들 語尾의 모습이 더 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이곳에서는 허웅(1975)의 「강조·영탄법」 가운데서 “入”系의 語尾를 대상으로 形態論的 分析을 시도하고 意味上의 特殊性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入”系의 이른바 「강조·영탄법」은 “-웃-, -뚫-” 系列과 “-入-” 系列로 大別된다. 單位確立에 援用되는 語形은 “-ㅎ-”로써 대신하기로 한다.<sup>2)</sup>

4.1.1. 먼저 “-웃-, -뚫-” 系列이 나타나는 語形을 對象으로 分析을 試圖하기로 한다.

- (1) ㅎ샷다, ㅎ샤스이다.
- (2) ㅎ뚫다, ㅎ노소이다, ㅎ노소니<sup>1)</sup>; ㅎ노소라, ㅎ노소니<sup>2)</sup>
- (3) ㅎ리샷다, ㅎ리샤스이다
- (4a) ㅎ닷다, ㅎ다스이다; ㅎ다소라, ㅎ다소니
- (4b) ㅎ리랏다, ㅎ리라스이다
- (5) ㅎ과소라
- (6a) ㅎ도다, ㅎ도소이다<sup>1)</sup>, ㅎ도소녀, ㅎ도소니; ㅎ도소이다<sup>2)</sup>
- (6b) ㅎ리로다, ㅎ리로소이다<sup>1)</sup>, ㅎ리로소녀, ㅎ리로소니잇가, ㅎ리로소니; ㅎ리로쌍다, ㅎ리로소이다<sup>2)</sup>

(1)의 “-샷다”의 “샤”가 尊敬法의 先語末語尾 “-(으)시-”와 話者 標識의 先語末語尾 “-오/우-” (앞으로 “-오/우-”라 略稱함)의 統合形이란 사실은 일찍부터 指摘되어 왔다(李崇寧 1961a). 그렇다면 “-(으)샷다”의 “-(으)샤-”는 母音 앞에서 實現되는 “(으)시”의 交替形임을 確認할 수 있다.<sup>3)</sup> (1)의 語形에서 “-(으)샤-”를 除去하면 “-웃-”이 析出된다. 이 形態素는 (2)(3)의 語形에서도 나타난다(後述). (1)의 또 하나의 語形 “-샤스이다”는 “-(으)샷-”에 분간성을 띤 ㅎ쇼셔體의 說明法 標識 “-이-”가 統合됨으로써 媒介母音 “으”가 들어간 것이다.<sup>4)</sup> “ㅎ샤스이다”와 함께 下降의 二重母音의 모습으로 음라우트된 “ㅎ샤시이다”가

1) 現代語의 感嘆法의 語形 確立과 이에 대한 意味 說明은 高永根(1974:§2.3;1976:§2.3.)참조.

2) 具體的 用例은 허웅(1975:974-976) 참조.

3) 安秉禧(1963:209;1967:207)에 의하면 “-(으)시-”와 “-(으)샤-”의 交替의 條件을 音韻論的인 面에 두고 있다. 前者는 後行語尾의 頭音이 子音일 때, 後者는 “-아/어-, -오/우터-, -오/우르-, -오/우니-, -오/우르” 등의 母音語尾 앞에서 實現되는 것이다. “-(으)샤-” 交替形을 總稱에는 “-(으)시-”가 “-아/어”등과 통합되면 “-(으)샤-”로 變異되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허웅 1955, 1958).

4) (1)의 語形에 대한 이러한 分析方式은 (2)(3)의 語形과 함께 이미 安秉禧(1967:215)에서 示唆된 바 있다.

存在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허용 1975:657, 661).

(2)의 “ㅎ눗다”의 “-눗다”는 ㅎ라體의 直說說明法 語形 “ㅎ눗다”의 “-눗다”와 比較하면 (1)에서 보았던 形態素 “-웃-”이 析出된다. 이곳의 “-ㄴ-”은 “-ㄴ-”의 音韻論的 異形態로 母音形態素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눗다”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으로 “-눗도다”가 있다. 보편적인 語形이 아니므로 “-눗다”의 隨意變形으로 처리한다.<sup>5)</sup> 그런데 (2)에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析出되지 않는 語形이 있다.

“ㅎ노소이다”는 (1)의 “ㅎ샤스이다”를 참조하면 “ㅎ눗다”의 ㅎ쇼셔體임을 알 수 있다. “\*ㅎ노스이다”로 實現되어야 할 것인데 “눗”이 媒介母音 “오”를 同化시킴으로써 “ㅎ노소이다”가 된 것이다(安秉禧 1967:215). “ㅎ노소니”도 “\*ㅎ노스니”였던 것인데 앞서 말한 同化規則의 適用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2)의 뒷뉘음 “ㅎ노소라, ㅎ노소니”는 앞뉘음의 “ㅎ눗다” 등의 “-웃-”에 “-오/우-가 붙은 것이다(安秉禧 1967:216). 文證되지는 않지만 “ㅎ노소라”의 ㅎ쇼셔體 “\*ㅎ노소이다”를 想定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ㅎ눗다”의 ㅎ쇼셔體와 그 形式이 같다. “ㅎ노소니”는 “눗”에 “-오/우-가 통합된 것인데 “ㅎ노소니”과 그 形式이 같아졌다. 兩者는 統辭構造에 의해서만 그 기능이 변별될 수 있다(後述).

(3)의 語形 “ㅎ리샷다, ㅎ리샤스이다”는 (1)의 語形을 기반으로 形成된 것이다. (1)에 나타나는 “-(으)샷-”이 하나의 單位로 굳어짐<sup>6)</sup>에 따라 그 위에 推測法의 先語末語尾 “-(으)리-”가 붙은 것이다. “-(으)룻-”내지 “-(으)리웃-”으로 나타날 것이 “-(으)리샷-”으로 實現된 것으로 해석한다. “ㅎ리샤스이다”는 “ㅎ리샷다”의 ㅎ쇼셔體이다. (2)에 나타나는 “ㅎ노소니” (<ㅎ노스니)의 存在에 의하여 “\*ㅎ리샤스니”를 假想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오/우-”가 붙은 “ㅎ샤소라, ㅎ샤소이다, ㅎ샤소니”의 語形은 假想할 수 없다. “-(으)샤-”와, “-다, -니”에 先行하는 “-오/우-”는 서로 排他的이기 때문이다(허용 1958, 1975:762).

(4)의 語形들은 (1)(2)의 語形들에 類推하여 설명할 수 있다.

(4a)의 “ㅎ닷다”의 “-닷다”는 回想法의 先語末語尾 “-더-”에 앞의 (1)(2)에서 析出한 “-웃-”이 統合된 것이다(高永根 1978). “ㅎ다스이다”는 “ㅎ닷다”의 ㅎ쇼셔體이다. “ㅎ노소니”를 참조하면 우리는 文證되지 않은 “\*ㅎ다스니”를 想定할 수 있다. 뒷뉘음의 “ㅎ다소라, ㅎ다소니”는 “-닷-”에 “-오/우-”가 統合된 것이다. 文證되지는 않지만 “ㅎ다소라”의 ㅎ쇼셔體 “\*하다소이다”를 想定할 수 있다. 드물지만 “-뫼더-”가 나타나는 일이 있다. 이는 “-닷-”의 한 隨意變形으로 간주할 수 있다(安秉禧 1967:216)(後述).

5) 허용(1975:945)에는 “-눗-”과 “-도-”의 合成形으로 간주하고 있다. “눗”에 다시 “뫼”이 붙은 것을 감동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6) 허용(1975:952)에 의하면 “煩惱ㅎ시리샤이다”에 “-(으)시-”가 나타나는 이유를 “[-샤-]가 영탄의 표시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시 [-으시-]를 겹쳐 주체 높임을 분명히 표현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b)의 “하리랏다”의 “-랏-”은 (4a)의 “-랏-”이 推測法의 先語末語尾 “-(으)리-” 아래서 交替된 것으로 制約條件은 形態論의이다. “하리라스이다”는 “하리랏다”의 ㅎ쇼셔體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4a)의 “하다스니”에 併行하는 “\*하리라스니”를 再構成할 수 있다. (4a)에 類推시키면 “-오/우-”가 統合된 “\*하리라소라, \*하리라소이다, \*하리라소니”의 語形을 假想할 수 있다.

(5)의 “하과소라”는 (2)의 “하노소라”와 (4a)의 “하다소라”를 고려하면 “-꽂-”에 “-오/우-”가 붙은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安秉禧 1967:216).<sup>7)</sup> 이 語形의 ㅎ쇼셔體 “하과소이다”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서 “하눗다, 하닷다; 하노소이다(<\*하노스이다), 하다스이다”에 併行하는 “\*하꽂다, \*하과소이다”를 생각할 수 있다. 연결어미에서는 “-과스니, -과소니” 대신 “\*-거스니, \*-거소니”가 기대된다. 接續連語語尾에서의 화자 標識의 語形은 “-가니”이기 때문이다(§3.1.1.).

(6)의 (a)(b)는 (4)의 그것에 併行된다. (6a)의 “하도다”와 “하도소이다”<sup>1)</sup>은 尊卑法의 差異만 認識될 뿐이다. 前者는 ㅎ라體, 後者는 ㅎ쇼셔體이다. “하도소이다”의 “-도소이다”는 (2)의 “하노소이다”와 같이 “-똥-”과 “-오이다”로 分析된다. “-오이다”는 “-으이다”가 先行하는 “-똥-”에 同化되어 實現된 것이다. “-도-”는 子音語尾 앞에서, “-똥-”은 母音語尾 앞에서 나타나므로 制約條件은 音韻論의이다.<sup>8)</sup> “-똥-, -똥-”과는 달리 “스”이 子音 “ㄷ”앞에서 脫落하여 불규칙적으로 交替되고 있다. “-똥-”이 子音 앞에서 그대로 維持된 “-똥다”의 用例가 발견됨<sup>9)</sup>은 “-도다”의 “-도-”가 “-똥-”과 交替形임을 잘 뒷받침한다. 의미상으로 볼 때도 “-똥다”는 “-도다”의 수의변형으로 처리된다(後述).

ㅎ쇼셔體의 說明法에서 確認된 “-똥-”은 ㅎ라體와 ㅎ쇼셔體의 疑問法<sup>10)</sup>에서도 나타난다. “하도소녀”는 ㅎ라體의 疑問法으로서 “\*하도소녀”가 同化規則의 適用을 받아 結果된 語形이다. 곧 “-똥-”에 “-으녀”가 統合된 것이다. (6b)의 “하리로소니잇가”를 참조하면 “하도소녀”의 ㅎ쇼셔體形 “\*하도소니잇가 (<\*하도소니잇가)”를 想定할 수 있다. “하도소니”는 “-똥-”에 “-으니”가 붙어 同化된 것으로 解釋한다.

(6a)의 뒷뉘음 “하도소이다”<sup>2)</sup>는 統辭上의 特徵(後述)을 고려하면 “-똥-”에 “-오/우-”가 統合된 것이다. “하도다”에 이런 語形이 實在함은 (2)(4)에서 “\*하노소이다, \*하다소이다”를 想定한 妥當性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한편 “하도소이다”의 ㅎ라體 “\*하도소라”의 설정

7) “-과-”의 기능을 허용(1962, 1963:248-250, 1975:796-798)에서는 「기정법」이라 하여 “-(으)니-”와 對立시키고 있으나 필자는 強調의 先語末語尾로 처리되어 온 “-거/어-”와 對立시키고자 한다. 그러던 “-과-”는 “-거/어-”에 話者標識의 “-오/우-”가 통합된 것이고 “-꽂-”은 “-거/어-”에 “-웃-”이 통합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3.1.1. 및 §3.2.1. 참조.

8) “-똥-”의 析出은 安秉禧(1967:216)에서 試圖된 일이 있다.

9) “-똥다, -똥더라”의 用例는 허용(1975:948)참조.

10) 中世語의 疑問法은 安秉禧(1965b)에 의해 體系的 叙述이 試圖되었고 허용(1975:495-516)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이 배풀어져 있다.

이 가능하다. 이러한 妥當性은 (2)(4)(5)에서 “호노소라, 호다소라, 호과소라”가 實在함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이곳에서도 “호노소니”, 호다소니”에 대응하는 “-오/우-” 統合形 “\*호도소니”의 설정이 가능하다.

(6b)의 語形은 (4b)의 그것에 併行한다. “-도다”가 推測法의 先語末語尾 “-(으)리-”와 統合하여 實現된 語形이다. “호리로소이다”<sup>11)</sup>은 “\*호리로스이다”에서, “호리로소녀”는 “\*호리로스녀”에서, “호리소니잇가”는 “\*호리로소니잇가”에서, “호리로소니”는 “\*호리로소니”에서 同化規則이 適用되어 각각 나타난 것이다. “호리로소이다”는 “-오/우-”가 介在된 語形이다. 이는 統辭論의 側面에서 立證된다(後述). 여기에서도 우리는 “-오/우-”가 介在한 “\*호리로소라”와 “\*호리로소니”를 假想할 수 있다.

(6b)에서 特記할 것은 호야씨體의 語形이 實在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煩雜을 피하려는 意圖에서 文證되는 例가 稀少한 호야씨體에 대한 語形을 일일이 再構成하여 提示하지 않았으나<sup>11)</sup> 다음 例는 “\*호리로소라”의 호야씨體形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어제 그딛 마를 드로니 뉘수매 來往호야 닛디 물호리로싱다(昨聞爾言호니 往來方寸間호야 不能忘이로다) (內訓 2下 : 37a)

이는 帝가 后에게 하는 말로 代名詞 “그디”<sup>12)</sup>와, 帝와 后 사이의 尊卑關係를 고려할 때 호야씨體임이 틀림없다.<sup>13)</sup> 主體가 話者 자신[帝]임은 이 語形이 “\*호리로소라”의 호야씨體로 쓰인 것임을 말해 준다<sup>14)</sup>. 이와 함께 우리는 “호리로다”의 호야씨體形 “\*호리로싱다”는 “\*호리로싱다”가 同化規則에 의해서 實現되는 것임도 假定할 수 있다.

#### 4.1.2. “-웃-, -뉘-”系列에 이어 “-스-”系列의 語形을 검토하기로 한다.

(8) 호소라, 호소이다, 호소니

(9) 호스다, 호스나

(10) 호야스타

(8)의 “호소라”는 이와 공통된 意味를 表示하는 不定法<sup>15)</sup>의 “호라”와 比較하면 “-스-”이 析出된다. “호소이다”는 “호소라”의 호소씨體 語形인데 不定法の “호이다”와 比較하면 역시 “-스-”이 識別된다. “호소니”도 不定法の “호니”를 고려하면 “-스-”을 얻는다. (8)의 語形은 “-스-”과 “-오/우-”를 先接한 不定法임을 알 수 있다.

11) 中世語의 尊卑法이 호리體, 호야씨體, 호소씨體의 三等分으로 되어 있다 함은 이미 安秉禧(1965a)에서 지적되었다. 그리고 각 文體法과 叙法에 따른 호야씨體의 再構成은 金忠會(1972)에 의해 周到하게 시도된 바 있다.

12) 中世語의 “그디, 그피”는 호야씨體와 呼應하는 代名詞로 알려져 있다(安秉禧 1965a)

13) 金忠會(1972:62)에는 文證되지 않은 호야씨體의 語形으로 再構成되어 있다. 한편 허웅(1975:666, 947)에는 호소씨體의 形式이 줄어든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14) 口訣文의 語尾가 “-로다”인 점을 들어 이 語形을 “호리로다”의 호야씨體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口訣은 漢文法의 관점에서 懸吐된 것이므로 口訣로써 번역문의 文法的 的의를 구명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5) 中世語의 不定法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語形(8)의 時相上의 特性은 (1)의 “-웃다”의 그것과 同一하다(後述). 이런 점에 근거하여 우리는 “-(으)샤-”가 消去된 語形 “\*웃다”를 假定할 수 있고 이의 指示體 “\*호스이다”를 想定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웃았다, 웃샤스이다” 뿐이다. 補充法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語形은 (2)(4)의 “웃는다, 웃었다”와 意味上의 對立을 이룬다. 또 “\*호노스니(>호노소니), \*웃다스니”에 對立하는 “\*호스니”의 形成을 假想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방식을 따르면 “-웃다”의 “오/우” 統合形은 “\*호소라, \*호소이다, \*호소니”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2)(4)(6)과도 均衡 있는 對立關係를 形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語形은, 앞에서 確認한 바와 같이, “웃소라, 웃소이다. 웃소니”와 같다. 앞의 “웃았다”와 같이 補充法的 形成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9)에서도 “-스-”이 確認된다. “웃는다”는 이와 共通된 意味를 띤 不定法의 2人稱疑問法(安秉禧 1965b) “호다”와 比較하면 “스”가 析出된다. 그러나 “-는다”는 분간성을 띠고 있으므로 “스”의 “으”는 어미에 소속된다. “웃는다”도 直說法的의 2人稱 疑問法 “호는다”와 比較하면 역시 “-스-”이 析出된다.

“-스-”은 命令法에도 確認된다. (10)의 語形이 命令法에 나타난 “-스-”의 보기다. 명령법 어미 “-(으)라”가 分간성을 띠고 있으므로 “-스-”만이 析出된다. “-스-”에 先行하는 “-아-”는 다른 기능을 표시하는 형태소로서 “-스-”과는 직접 關係가 없다.<sup>16)</sup> 지금 析出한 “-스-”이 앞서 識別한 “-웃-, -웃-”과 構造上으로 어떠한 關係에 놓여 있는가는 意味의 側面이 뒷받침되어야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後述).

4.1.3. 지금까지 살펴본 “-웃-, -웃-” 및 “-스-”이 介在된 語形과 그것의 “-오/우-” 統

구분 語末語尾 叙法	“웃, 웃, 스” 統合形				“웃, 웃, 스”과 “-오/우-” 統合形		
	說明法	疑問法	命令法	接續	說明法	疑問法	接續
不定法 (1)	*웃다(웃았다) *호스이다(웃샤스 이다)		웃야스라	*호스니	*호소라(웃소라) *호소이다(웃소이 다)	웃는다	*호소니 (웃소니)
直說法	웃는다, *호노스 이다(호노소이 다)			*호노스 니(호노 소니 <sup>1)</sup> )	호노소라 *호노소이다	호노는다	호노소 니 <sup>2)</sup>
推測法 (1)	웃리셨다, *웃리 샤스이다			*웃리샤 스니			
回想法	웃었다, 웃다스이 다			*웃다스 니	웃다소라 *웃다스이다		*웃다스 니
推測回想法	웃리랴다 *웃리라스이다			*웃리라 스니	*웃리라소라 *웃리라소이다		*웃리라 소니

16) 이는 中世語 先語末語尾 “-거/어-”의 “-어-”이다. 이에 대해서는 §3.1.1. 및 §3.2.1. 참조.

確 認 法	* <u>ᄃᆞᆫ</u> * <u>ᄃᆞᆫ</u> ᄃᆞᆫ				ᄃᆞᆫᄃᆞᆫ * <u>ᄃᆞᆫ</u> ᄃᆞᆫ		
不 定 法 (2)	ᄃᆞᆫᄃᆞᆫ, * <u>ᄃᆞᆫ</u> ᄃᆞᆫ ᄃᆞᆫ <sup>1)</sup>	* <u>ᄃᆞᆫ</u>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 <u>ᄃᆞᆫ</u> ᄃᆞᆫᄃᆞᆫᄃᆞᆫ (* <u>ᄃᆞᆫ</u> ᄃᆞᆫᄃᆞᆫᄃᆞᆫ)		* <u>ᄃᆞᆫ</u> ᄃᆞᆫ ᄃᆞᆫᄃᆞᆫ	* <u>ᄃᆞᆫ</u>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sup>2)</sup>		* <u>ᄃᆞᆫ</u> ᄃᆞᆫ ᄃᆞᆫ
推 測 法 (2)	ᄃᆞᆫᄃᆞᆫ * <u>ᄃᆞᆫ</u>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sup>1)</sup>	* <u>ᄃᆞᆫ</u>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 <u>ᄃᆞᆫ</u>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 <u>ᄃᆞᆫ</u>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sup>2)</sup>		* <u>ᄃᆞᆫ</u> ᄃᆞᆫ ᄃᆞᆫᄃᆞᆫ

圖表 1.

合形을 語末語尾와 叙法<sup>17)</sup>에 걸쳐 圖表로 제시한다. '實在形과 補充形은 괄호안에 넣고 원래의 형태는 괄호 밖에 둔다. 體系上으로 再構된 假想形들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sup>18)</sup>

4.2.0. 앞의 圖表(§4.1.3.)에서 提示한 叙法의 순서에 따라 “-ᄃᆞᆫ-, -ᄃᆞᆫ-”과 “-ᄃᆞᆫ-”의 統辭·意味上的 特性和 그 關聯性을 究明하기로 한다. 앞의 原則法, 確認法과 같이 이들이 나타나는 場面과 그것에 의해 表示되는 時相도 幅 넓게 論議하기로 한다.

#### 4.2.1. 不定法 (1)

不定法(1)이라 함은 어떠한 時相關聯要素도 포함하지 않은, 圖表의 實在形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1) “諸衆生을 너비 引導ᄃᆞᆫ 善提를 썰리 일우게 ᄃᆞᆫᄃᆞᆫᄃᆞᆫ”(=廣導諸衆生ᄃᆞᆫ 令速成善提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法華 4:169ab)
- (2) “世尊이 世間에 나샤 甚히 奇持ᄃᆞᆫᄃᆞᆫ”(月釋 7:14b)
- (3) “ᄃᆞᆫᄃᆞᆫ 비치…頻婆果 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如頻婆果ᄃᆞᆫᄃᆞᆫᄃᆞᆫ)(法華 7:148a)
- (4) “階下 ᄃᆞᆫᄃᆞᆫ 당다이 ᄃᆞᆫᄃᆞᆫᄃᆞᆫ”(月釋 2:65b)

이상의 用例들은 相關의 場面に 나타난 것이다. (1)은 智積보살이 文殊師利 앞에서 大智德의 과거의 功德을 偈로써 찬탄하는 말이다. 바로 앞 텍스트에서 지적보살은 대지덕이 과거에 중생을 化度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大會와 자기[지적보살]가 그 사실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1)과 같이 그 공덕을 구체적으로 設화한 것이다. (1)의 事件時는 發話時에 先行한다. 그것은 “-ᄃᆞᆫ-”의 統合用言이 [-상태성]의 動作類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用例(2)는 부처가 7日만에 阿羅漢을 이루어 내는 것을 보고 比丘들이 찬탄하는 말이다. 부처를 상대로 하는 말인데도 “ᄃᆞᆫᄃᆞᆫᄃᆞᆫ”로 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獨白임을 意味한다. (3)은 妙莊嚴王이 허공에서 내려와 세존에게 如來의 용모가 非凡함을 찬탄하는 말이다. (4)는 指定詞에 “ᄃᆞᆫᄃᆞᆫ”의 ᄃᆞᆫᄃᆞᆫᄃᆞᆫ 語形이 붙는 것이다(그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는 ᄃᆞᆫᄃᆞᆫᄃᆞᆫ

17) 中世語의 叙法에 대하여 따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8) 不定法과 推測法을 (1)(2)로 表示한 것은 그들의 기능이 同一하리라는 전체 밑에 취해진 조치이며 人稱疑問法 “-ᄃᆞᆫ”를 “-ᄃᆞᆫ/ᄃᆞᆫ-” 統合形의 자리에 配置한 것은 그것이 이른바 意圖法의 疑問을 表示한다는 解釋(安秉禧 1965b:70;1967:220)에 立脚한 것이다.



다”가 二重母音으로 음라우트된 語形인데 (§4.1.1.), 그것은 (1)(3)의 口訣文과 번역문과의 比較에 의해서도 밝히 드러난다. 用例(4)는 臣下인 太史傅毅가 王(後漢明帝)에게 꿈풀이하는 말이다. (2)~(4)의 事件時는 發話時와 대체로 一致한다. 그것은 “-웃-”의 統合語幹이 (1)과는 달리 [+상대성]의 動作類에 속하는 形容詞와 指定詞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用例들은 화자와 청자가 共同으로 參與하는 相關의 場面이기는 하지만 兩方的 通報行爲를 遂行한다고 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一方的 通報行爲에 가깝다. 用例(2)는 獨白임에 틀림없고(前述) (1)은 부처의 교리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 글귀인 偈로써 하는 말이며 (3)은 화자가 허공에서 내려와 찬탄하는 말로서 正常的 對話의 狀況이 아니다. (4)도 王은 꿈풀이를 듣기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5) 우흐른 日月에 니를오 아래론 輪團에 니를오 가운던론 萬物에 니르리 낫나치 子細히 亂히에 亨샷다(=上極日月하고 下極輪團하고 中極萬物히 令—詳釋也) 샷다(楞嚴 2:34b)

(6) 正位에 드르샤 正法을 니르샤 二乘에 머리 견내뻬샤 녹의야 退轉이 업스샷다(月釋 17:26a)

위의 用例들은 單獨의 場面, 곧 地文에 쓰인 것들이다. (5)는 “極汝見源”에 대한 翫주이고 (6)은 “不退法輪”에 대한 翫주다. 대화가 아닌 만큼 작자(업적히는 譯者)의 독자에 대한 一方的 通報行爲라고 할 것이다. “-웃-”이 表示하는 時相의 意味는 앞의 相關의 場面과 비슷하다. (5)는 事件時가 발화시보다 앞서고 (6)은 일치한다. 그것은 統合用言의 動作類의 特性에 말미암는다.<sup>19)</sup>

相關의 場面보다는 單獨의 場面に 우세하게 나타나고 時相과는 無關한 “-웃-”의 기능은 무엇일까? “-웃-”이 消去된 活用形과의 比較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用例 (1)~(6)의 活用形에서 “-웃-”이 除去된 語形을 제시한다.

(1') ...일우게 亨시이다 cf. (1)

(2') ...奇特亨시다. cf. (2)

(3') ...르亨시이다 cf. (3)

(4') ...괴시이다 cf. (4)

(5') ...亂히에 亨시다 cf. (5)

(6') ...업스시다 cf. (6)

이들은 모두 說明法語尾 “-다”에 의한 不定法의 형태다. “-웃-”이 쓰인 문맥에 이런 活用形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같은 상황에 나타나는 같은 品詞의 같은 活用形의 例文과 比較할 수밖에 없다.

(7) “내 億劫엿 顛倒想을 슬우샤 僧祇를 디나디 아니亨야셔 法身을 亂게 亨시이다”(口訣文省略) (楞嚴 3:111b-112a) cf. (1)

(8) “太子人 모미 傷亨야 命이 머디 아니亨시이다”(釋詳 11:21b) cf. (2)(3)

19) 處容歌의 아래 用例도 통합용언이 [-상대성]의 動作類를 表示하므로 事件時가 發話時에 先行하는 것으로 解釋해야 한다. “消滅하시리로다”와 같은 풀이(朴炳采 1968:138)는 적어도 文法的 觀

(9) 王이 이 돌래 刻히샤 南郊에 무더 두라 흐시다(月釋 2:49b) cf. (5)(6)

(7)은 阿難이 世尊 앞에서 부처를 기리는 말인데 (1)과 같이 事件時는 發話時에 先行한다. (8)은 대신이 왕에게 하는 말로서 事件時와 發話時가 일치한다. (9)는 地文의 用例로서 작자의 말이다. “흐다”의 動作類의 특성이 [-상태성]이므로 事件時는 發話時에 先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9)의, “-웃-”이 缺如된 語形은 그것이 포함된 (1)~(6)의 語形보다 兩方的 通報의 기능이 강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면 “-웃-”이 포함된 語形의 一方的 通報기능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웃-”의 지시내용과 有關하다.

화자가 사태를 경이의 대상으로 파악할 때 “-웃-”이 선택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3), (5)(6)은 모두 부처의 행적을 驚異의 對象으로 인식하는 例로 간주된다. 用例(2)를 (8)과 비교해 보면 前者는 부처가 아라한을 이루어 내는 것을 경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웃-”이 쓰였으나 (8)은 신하들이 태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웃-”이 缺如된 것이다. 따라서 前者의 例文에는 “놀람게도”와 같은 적극적 情感(Emotionalität)表示의 부사가 插入될 수 있다. 그러나 後者에서는 태자의 죽음이 기대된 것이므로 “슬프게도”와 같은 소극적 부사가 자연스럽지 못하다.<sup>20)</sup> 用例(4)는 다른 用例와 性格이 다르다. 話者의 情感이 표시된다고 하기보다 樣態性(Modalität)의 觀點에서 事態를 判斷하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例文에는 “틀림없이” 등의 樣態性을 띤 부사를 插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웃-”의 一方的 通報기능은 이러한 화자의 정감적 내지 양태적 사태 파악의 태도와 직접 관련된다.

“-웃-”에 이어 “-入-”의 意味를 살펴보기로 한다.

(10) 네 鳳翔에 이서 金閨에 籍을 다뫼 通호소라(原詩省略)(杜諺 7:26b)

(11) “우리들토 울워습는 견츠로 舍粒 일즈바다가 塔 일어 供養호수보려 ㅎ야 머리서 오소이다”(釋詳 23:53b)

(12) 우리 무른 슝으로 두루 브터든너 世上이 이레 제여곰 艱難호소라(原詩省略)(杜諺 15:51a)

(13) 도즈볼 수머 흔번 흐려나소니 주리며 치우메 기리 서르 ㅂ라노라(原詩省略)(杜諺 8:29a)

用例(10)(11)(13)은 事件時가 發話時보다 앞선다.<sup>21)</sup> 그것은 統合되는 用言의 動作類가 [-상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用例(12)는 事件時와 發話時가 일치하는데 그것은 “艱難

點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三災八難이 一時 消滅호삿다(樂學軌範)

20) 화자의 命題에 대한 主觀的 評價를 表示하는 이른바 Modalwörter는 樣態性(Modalität)과 情感性(Emotionalität)의 두가지 下位區分이 가능하며 後者는 ‘기쁨’과 關係되는 적극적 正感(positive Emotionen)과 ‘슬픔’과 關係되는 소극적 正感(negative Emotionen)의 두가지가 있다. 자세한 것은 Helbig & Buscha (1975:448-451) 참조.

21) 動動에 나타나는 다음 用例는 用例(11)과 같이 事件時가 發話時보다 앞서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십시다”와 같은 請誘法의 解釋(梁柱東 1947:77-78; 朴炳采 1968:72-73)은 文法的 觀點에서는 許容되지 않는다. 허웅(1975:954)에도 이런 점이 지적되어 있다.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으라 오소이다(樂學軌範)

하다”의 動作類가 [+상태성]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時相的 方面의 不定性은 “-으-”을 檢討하는 마당에서도 나타났었다.

“-오/우-”와 統合되는 “-스-”의 意味를 밝혀 내는 일은 “-스-”이 缺如된, 다시 말하면 “오/우-”만을 取하는 語形과 比較하는 것이다. 用例(10)~(13)에서 “-스-”을 除去해 보자.

- (10') ...通호라 cf. (10)
- (11') ...오이다 cf. (11)
- (12') ...艱難호라 cf. (12)
- (13') ...호리나니 cf. (13)

위의 用例에 準하는 실지의 例文과 比較해 보자.

- (14) “내 지복 이삼 저귀 受苦호미 이리호니 이런 因緣으로 道理를 得호라”(月釋 10:26a)
- (15) “나는 齋米를 求호야 온 디 아니라 大王을 보소브라 오이다”(月釋 8:90b)
- (16) “하늘 우과 하늘 아래 나뉘 尊호라”(月釋 2:38a)
- (17) “늬 출 뜨디 이실씨 가져 가니 엇메 잡는다”(月釋 2:13a)

“-으-”이 缺如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밀줄친 말의 事件時는 [-상태성]의 用言일 때는 發話時에 先行하고 (14, 15, 17), [+상태성]일 때는 일치한다(16). “-스-” 插入形과 比較해 볼 때 時相이 共通되고 場面도 다같이 주로 相關性을 띤 對話인 점에서 또한 共通的 特性을 보여 준다. 또 主體도 다 같이 話者이므로 統辭上의 差異도 발견할 수 없다. “-으-”의 경우와 같이 화자의 情感的 내지 樣態의 態度와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다.

用例(10)은 杜甫 자신이 옛날 鳳翔의 行在에 있을 때는 벼슬아치로서 신분증을 보이며 侍御와 함께 마음대로 宮門에 드나들었다는 뜻이다.<sup>22)</sup> 과거의 그러한 行動을 현재의 처지와 비교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화자의 情感的 態度가 엿보인다. 그런데 用例(14)는 華色比丘尼가 大衆에게 하는 말로서 자기가 道理를 얻게 된 경위를 단순하게 陳述한 것이다. 이때도 화자가 자기 行爲를 肯定的으로 보거나 積極的으로 確認하는 立場에 서게 되면 “得호소라”라 말할 수 있다. (11)은 時遮頗國 등이 四兵을 일으켜 拘尸王에게 와서 하는 말로서 자기들의 行爲를 積極적으로 確認하는 화자의 태도를 살필 수 있다. “틀림없이” 등의 樣態性 부사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이 缺如된 (15)는 比丘가 圓安부인에게 하는 말인데 情感性을 부여할 意圖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11)과 비교할 때 “-스-”이 插入되지 않아야 할 理由를 찾기가 힘들지만 화자는 “-스-” 插入形을 取하지 않았다. 화자가 아무리 사태를 情感的 내지 樣態的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言語形態로 實現되지 않을 수도 있다. (15)도 그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用例(12)는 다른 사람들은 잘 되었는데 우리들은 그와는 달리 각자가 모두 세상의 어려운 처지에 飄泊하는 신세임을 한탄하는 것이다. 한편 (16)은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하는

22) “-스-, -으-”이 插入된 杜詩諺解의 引例에 대한 풀이에는 李丙燾교수의 가르침에 힘입었다.

말이다. 형태가 缺如되었으므로 정감성을 부여할 意圖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은 형제가 도적을 피하여 서로 흩어지게 된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태도가 보인다. 그런데 (17)은 석가의 前身인 영무가 舍利弗의 전신인 발입자에게 하는 말로 자기의 行爲가 단순하게 陳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疑問法과 命令法에 나타나는 “-스-”은 樣態的 態度와 주로 관련되지 않나 한다.

(18) “므슴 方便올브터 三摩地에 드스다”(口訣文省略)(楞嚴 5:31b)

위의 用例는 “-스-”이 缺如된 다음과 같은 例文과의 比較에 의하여 그 意味가 把握되어야 한다.

(19) “엇던 行業을 지서 惡道에 버리딘다”(月釋 21:56a)

用例(19)의 統辭構造는 (18)과 하등 다른 점이 없다. “-스-”의 缺如가 統辭構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時相이나 場面上의 差異도 보여 주지 않는다.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意味上의 特殊性은 찾아 내어야 한다. 用例가 하나뿐이어서 用法을 一般化시키기가 주저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18)에 대한 답변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18') “부테 圓通을 무르신씨 내 證호멘 音聲이 上이로소이다”(口訣文省略)(楞嚴 5:32b-33a)<sup>23)</sup>

用例(18)은 세존이 모든 大菩薩에게 하는 말인데 그 답변이 (18')와 같이 “-도소이다”로 끝나 있다. (18)은 情感性보다는 樣態性과 더 밀접하지 않나 한다. 무슨 方便으로 삼마지에 들었는지 청자에게 확신성 있게 답변해 달라는 화자의 意圖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에 응하는 답변도 “-도소이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音聲이 上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用例(19)는 確信性이 缺如된 질문이다. 따라서 그 답변도 (18)과는 달라나타난다.

(19') “산것 주기며 허리 구것는 두 業으로 報를 受호라”(月釋 21:56ab)

用例(19)는 光目이 婁子에게 樣態性의 介入없이 단순하게 질문한 것인데 婁子의 답변인 (19')에서도 단순한 說明法語尾로 相應하고 있다. (18)(18')와는 좋은 對照를 보여 준다. 命令法에서도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20) “너희들허 아른스라 내 지비 이실 찌기 受苦호며 이려호니 이런 因緣으로 道理를 得호라”(月釋 10:26a)

(21) “너희 아른라 一切天人의 불로 如來入 棺을 문 스슴는 거시라”(釋詳 23:45b)

用例(21)은 “-스-”이 缺如된 語形이지만 用例(20)과 比較할 때 統辭構造나 場面上의 특성이 바뀌지 않고 있다. (20)은 파라문이 釋女에게 자기가 得道하게 된 경위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청자에게 信念 있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意圖의 작용과 관련시켜야 한다.

23) 32장부터 이러한 用例가 반복되어 나온다.

(21)과 같은 단순한 “하야라”形式의 命令法에서도 그러한 用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스-”의 挿入은 그것을 한층더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같은 화자의 같은 청자에 대한 말에서도 “-스-”이 介入될 수 있고 缺如될 수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화자에게 달린 문제인 것이다.

(22) “너희들히…느외야 모습 게을이 먹디 마라스라”(釋詳 23:12a)

(23) “내 聖師 | 느외야 닐흔 아홉히에 ㅎ을 이물 ㅎ마 마초니 너희들히 ㅎ뻬스라. 바미 ㅎ마 ㅎ이 ㅎ이다. 게으른 ㅎ 먹디 마아라.”(釋詳 23:13a)

두 用例 모두 부처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이다. (22)에서는 “먹디 말-”에 “-스-”이 介入된 데 대해 (23)에서는 빠져 있다. 이는 “-스-”의 기능이 動搖되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다.

이러나 不定法(1)에 속하는 “-웃-, -스-”은 화자가 사태를 情感的 내지 樣態的으로 認識할 때 쓰이는 意味上의 共通性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主體가 非話者일 때 나타나는 “-웃-”은 一方的 通報機能과 함께 情感性의 用法이 우세하였으며 主體가 話者일 때 나타나는 “-스-”은 情感性과 樣態性이 交錯되는 樣相을 보여 준다. 한편 疑問法과 命令法에서 樣態的 用法만 파악되는 것으로 해석해 보았다.

#### 4.2.2. 直說法

直說法이라 함은 直說法 “-느-”를 先接한, 圖表에 提示된 實在形 “ㅎ낫다, ㅎ노소이다, ㅎ노소니<sup>1</sup>; ㅎ노소라, ㅎ느순다, ㅎ노소니<sup>2</sup>”를 總括하는 것이다.

(1) “네 오히려 아니 몰ㅎ낫다”(=汝猶不知로다) (楞嚴 3:77a)

(2) “부테…오늘 ㅎ 우업슨 ㅎ 큰 法輪을 옮기시노소이다”(口訣文省略) (法華 2:46b-47a)

(3) “一切 善根이 마자 無上心을 돕습노소이다”(=一切具善根하야 以助無上心이로소이다) (法華 5:185b-186a)

위의 用例들은 相關의 場面에 쓰인 것이다. 用例(1)은 부처의 阿難에 대한 말인데 對話라기보다는 一方的 通報行爲에 가깝다. (2)(3)은 “ㅎ낫다”의 “-오/우-”統合形과 形式이 같다. 그러나 統辭構造는 달라서 (2)의 主體는 “부처”, (3)의 主體는 文面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十方諸天”으로 간주된다. 특히 (2)의 主體가 話者 자신이 될수 없음을 尊敬法의 先語末語尾 “-(으)시-”의 나타남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用例(2)도 (1)과 같이 一方的 通報行爲에 가깝다. 四部衆比丘尼 등이 舍利弗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用例(3)은 미륵보살이 부처에게 하는 말로서 (1)(2)보다는 兩方的 通報行爲의 성격이 짙다. 이 말에 이어 부처의 말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用例는 獨白으로 간주된다.

(4) 俱夷 너기샤덕 <이 男子 | 精誠이 至極을써 보비를 아니 앗기낫다> ㅎ거늘(月釋 1:11ab)

(5) 聖主入 나라래 盜賊이 하니 賢臣의 버스리 놓낫다(原詩省略)(杜諺 24:2b)

用例(4)는 “너기샤덕”로 미루어 獨白이다. (5)는 [+상태성]의 用言에 “-낫다”가 統合된

것인데 “현신의 벼슬이 높아 가는구나”와 같이 [-상태성]의 動作類의 기능을 보여 준다. 이것도 두보 자신의 獨白으로 볼 수 있다. 두 用例의 主體는 非話者이다. (4)의 것은 “男子”, (5)의 것은 “賢臣의 벼슬”이다.

앞에서 우리는 “-늦도-”를 “-늦-”의 隨意變形으로 다룬 일이 있거니와 (§4.1.1), 이는 統辭的 側面에서 뒷받침된다.

(6) 구름 켜 마르매는 툭니치 軒檻에 오르늦도다(原詩省略)(杜諺 8:25b)

이것도 두보 자신의 獨白으로 간주될 수 있는 用例인데 主體는 “툭빛”으로서 非話者이다. 다음은 地文이다.

(7) 다오매 썰리 가늦다(=驟趨於盡 | 로다)(楞嚴 2:7ab)

(8) 년즈서 本來스 무수물 일허 브리늦다(=等閑히 失却本來心이로다)(南明下:34a)

用例(7)은 협주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地文이고 (8)은 本文의 地文이다. 이들은 主體가 文面に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非話者로 간주된다.

(9) “西方에 聖人이 나지노스니 이 後로 千年이번 그 法이 이에 나오리로소이다”(月釋 2:49a)

(10) 하눌히 서늘커늘 白鶴이 華表에 도라오노스니 히 디기든 靑籠을 몹 가온디 보리로다(原詩省略)(杜諺 15:35a)

用例(9)은 主體가 非話者(“聖人”)인 점에서, 그리고 尊敬法의 先語末語尾 “-(으)시-”가 統合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지노스니”의 同化形일 시 분명하며 (10)은 “白鶴”이 主體로 간주되므로 “\*도라오노스니”의 同化形으로 보아야 한다.

直說法에 나타나는 “-웃-”의 用法도 不定法(1)의 “-웃-”과 크게 다르지 않다. 相關的 場面보다는 單獨的 場面이나 이에 가까운 發話行爲에 쓰이고 있다. 主體가 非話者인 점도 不定法(1)의 “-웃-”과 共通된다. 不定法의 “-웃-”이 非話者인 主體와 呼應된다는 것은 그것이 尊敬의 “-(으)시-”와 통합된다는 점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差異點이라고는 時相인데 그것은 先語末語尾 “-느(ㄴ)-”의 插入與否에 依存하는 것이다. 그러면 直說法에 나타나는 “-웃-”의 기능은 무엇일까? 不定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웃-”이 缺如된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 究明되어야 한다.

(11) “내 正히 니르고지커늘 네 이제 또 묻는다”(月釋 23:97a)

(12) “世尊이 弟子 阿難 羅雲이들 더브르샤 하마 오시느이다”(月釋 10:8a)

(13) 미헛 새 놀애 브르느다(口訣文省略)(金三 3:14a)

(14) “諸佛도 出家 하샤사 道理를 닷마시느니 나도 그리 호리라”(釋詳 6:12a)

用例(11)은 부처가 目連에게 하는 말인데 2人稱 代名詞 “너”가 主體로 되어 있는 점 등 用例(1)과 統辭構造가 일치한다. (12)는 大稱王이 淨班王에게 하는 말로서 用例(2)(3)과

같이 主體가 3人稱(“世尊”)이며 (13)은 頌에 나타나는 것인데 用例(7)(8)과 같은 地文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用例(14)도 用例(9)(10)과 統辭構造面에서 차이가 없다. “-웃-”이 缺如된 語形은 그것이 插入된 語形과 統辭的 側面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兩方的 通報機能의 우세하다. 直說法의 “-붓-”에서 관찰되는 一方的 通報機能은 不定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웃-”의 지시내용에 말미암는다. 不定法과 같이 화자의 感情이 적극적 내지 소극적으로 表示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用例(2)(3)(4)(5)(6)(9)는 “놀랍게도, 뜻밖에도, 신기하게도” 등의 적극적인 情感性 부사를 插入할 수 있고 用例 (1)(7)(8)은 “유감스럽게도, 아쉽게도” 등의 소극적인 情感性 부사의 補充이 가능하다. (9)는 周의 昭王이 天地에 瑞氣가 가득찬 것을 보고 群臣에게 물으니 태사벼슬로 있던 蘇由가 왕에게 사퇴는 말인데 情感性보다는 樣態性과 관련된다. “확실히, 틀림없이” 등의 부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12)(13)(14)는 情感性 부사의 插入을 허용하지 않는다. 텍스트의 先後를 고려할 때 화자는 사태를 그저 단순하게 認識하였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느”가 선택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用例(11)은 앞에 “마장 도타 흰히 불느다”가 오는 것을 보아 사태를 정감적으로 파악한 것이 틀림없으나 “-붓-”이 쓰이지 않았다. 앞의 부정법에서도 본 바와 같이 (§4.2.1.), 화자에게 依存하는 것이다.

直說法의 “붓”에 “-오/우-”가 統合된 形式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5) 마술 오매 서로 도라본던 오히려 다붓 빌여 둔니도 하니 丹砂에 나야 가디 물호물 葛洪을 붓  
그리노소라(原詩省略)(杜諺 21:34a)

(16) “우리도 이 偶를 좃츠바 외오노소라”(月釋 8:100b)

(17) 方舟호매 비출 쓰디 아니호노소니 마장 눈 뼈 보니 畝거리 입도나(原詩省略)(杜諺 15:31a)

用例(15)(17)의 主體는 杜甫 자신으로서 話者이며 (16)은 安樂國이 八姝女들에게 偶를 어디서 들었느냐고 묻자 그 경위를 설명하는 말로서 主體는 역시 話者 자신이다.<sup>24)</sup> 不定法의 “-스-” 插入形의 “-오/우-” 統合形과 그 用法이 併行한다. 直說法의 “-오/우-” 統合形의 기능 또한 “-웃-”이 缺如된 語形 “붓그리노라, 외오노라, 쓰디 아니호노니”와의 비교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 (15)(16)은 情感性으로써, (17)은 樣態性으로써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用例(15)는 “유감스럽게도”, (16)은 “기꺼이”, (17)은 “자신감에 넘쳐” 등의 情感 내지 樣態表示의 부사를 補充할 수 있기 때문이다.

直說疑問法에 나타나는 “-스-”도 不定法의 “-스-”와는 勿論, “-웃-”과 그 意味가 같지 않은가 한다.

24) 다음의 用例는 用例(10)과 같이 主體를 3人稱(“災禍”)으로 잡아야지 1人稱(“우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오노소니”는 “\*오노스니”의 同化形인 것이다 (§4.1.1.).

六師의 무리...너교되<우리 이제 喪호 災禍> 하마 오노소니 이제 天人大衆에 가사 호리로 다>호고(釋詳11:14b)

(18) “너희들히 므스글 보느슨다”(月釋 10:28a)

不定法の “ㅎ스다”와 같이 알려진 例文은 하나밖에 없다. 用例(18)은 五百群賊이 서로 “우리들히 여러 히를 도죽호더 이 곤ㅎ니 본 적 업다”라고 말하는 것을 위두도적이 듣고 묻는 말이다. 이것에 나타나는 “-스-”의 意味는 “-스-”이 缺如된 다음과 같은 例文과의 비교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

(19) “므스글 얼느다”(月釋 1:36b)

이는 한 比丘가 허공을 만지는 것을 다른 사람(“놈”)이 보고 묻는 말이다. 用例(18)과 비교할 때 統辭構造나 時相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화자의 청자에 대한 態度에서 意味上的 特殊性을 찾아야 한다. 用例(18)에 대한 답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 “ㅎ 노미 큰 象 ㅅ고 오시며…ㅎ나히로소니 우리들히…곳니 아니ㅎ리로소이나”(月釋10:28ab)

不定法の “-스-”과 마찬가지로 (§4.2.1.), “-도소니, -도소이다”로 나타난다. 이는 “-스-”과 “-ㅅ-”의 意味上的 共通性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한다(後述). (18)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무슨 희한한 일이 있기에 그렇게도 놀라와 하는지 確信性 있게 답변한 것을 要求하게 되니 그 답변도 또한 確信性 있게 陳述되어야 하므로 “-ㅅ-”이 插入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19)에 대한 답변은 “내몸 얼노라”이다. 물음에서도 답변에서도 樣態性이나 情感性과 관련된 화자의 어떤 意圖를 읽어 내기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스-”의 意味를 그것이 缺如된 語形의 물음과 답변과의 비교에 의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直說法에 나타나는 “-ㅅ-, -스-”의 意味도 不定法の 그것과 같다. 화자가 사태를 情感的 내지 樣態의으로 파악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主體가 非話者일 때는 一方的 통보기능과 함께 情感性이 우세하였고 疑問法에서는 樣態的이었으며 主體가 화자일 때는 두 가지의 기능을 쉽사리 구별하기 힘들음을 지적할 수 있다.

## 4.2.3. 推測法(1)

推測法(1)은 先語末語尾 “-(으)리-”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ㅎ리쌌다, ㅎ리샤스이다”를 가리킨다.

## (1) “十方如來도 後에 만드기 煩惱 ㅎ시리샤이다(=十方如來도 後應煩惱 | 샤스이다) (圓覺上 1-1: 10b, 8a)

(2) 기괴 아리샤 아리브니 바즈지나 어후 솔오리쌌다(=可謂深知宿契 쌌다)(法華 4:70ab)

用例(1)은 넥스트의 앞 부분이 “菩薩入 詰難 ㅎ샤면 ㅅ데 니르샤터”인 점으로 보아 一方的 通報行爲일 가능성이 길다. (2)는 첨주 지문이다. “-(으)리-”가 表示하는 時相은 (1)에서는 時間 副詞 “後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發話時 이후이며 (2)는 그 事件時가 發話時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推測法(1)에 나타나는 “-웃-”, 자세히 말하면 “-삿-”의 意味는 이것이 缺如된 “煩惱<sub>ᄃᆞᆫ</sub>시리이다. 솔오리라”와의 비교에 의하여 究明되어야 한다. 그러나 提示된 用例만으로도 충분하다. 樣態性 副詞 “반드기, 어루” 등으로 미루어 樣態性의 觀點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4.2.4. 回想法

回想法은 回想法 “-더-”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ᄃᆞᆫ닷다, ᄃᆞᆫ다스이다; ᄃᆞᆫ다소라, ᄃᆞᆫ다소이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1) <如來 恩惠를 아르샤…父母孝養 ᄃᆞᆫ시닷다>ᄃᆞᆫ고(月釋 21:208a)
- (2) <우리들히 요스이에 大師 거신 파홀 모르다니 切利天에 거시닷다>(月釋 21:201a)

用例(1)은 放逸衆生이 三千大千世界에 틀리는 부처의 비파[琴]소리를 듣고 부처의 행적을 찬양·독백하는 것이며 (2)는 如來가 곧 열반에 든다는 鳩摩羅의 傳言을 듣고 衆生들이 獨白하는 말이다. 主體는 모두 非話者이다.

- (3) “내 지운 큰 罪를 이제 比丘의 懺悔<sub>ᄃᆞᆫ</sub>노니 내 ᄃᆞᆫ던 이리 甚히 의나스이다”(釋詳 24:18a)
- (4) “(어마님) 주거 化樂天宮에 나시리어늘 天宮에 몸 보수보니 도르며 地獄에 거시다스이다.”(月釋 23:86b)

用例(3)은 王이 比丘에게 함장하고 하는 말로서 一方的 通報行爲다. (4)는 目連이, 생전에 佛道를 열심히 받들어지 化樂天宮에 태어날 줄 알았던 그의 어머니에게 고향치며 하는 말이다. 目連이 처음 어머니를 내렸을 때 “어마님, 어마님 사라 겨심 저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텍스트가 얼마나 一方的이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用例 다 正常的 對話의 狀況에 놓여 있다고 하기 어렵다. 用例(1)(2)의 범주에 넣어 처리할 수 있다. 主體는 모두 非話者的인 것이다. (3)의 主體는 “일” (--- 참조), (4)의 主體는 2人稱의 用法을 띤 “어머니”다.

- (5) 장초 나비 히다 너기더니 조 거므니 잇닷다(口訣文省略) (金三 4:22b)

위의 用例는 “頌”으로서 地文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主體는 “거므니”이다.

回想法의 “-웃-”도 獨白이나 이와 비슷한 一方的 陳述에 나타나서 單獨의 場面の 用法이 절대적이다. 主體의 事件時는 화자의 經驗時點과 일치한다.<sup>25)</sup> 用例(1)은 動作이, (2)(4)(5)는 存在가, (3)은 狀態가 經驗 당시 각각 現在의 입을 표시한다.

回想法에 나타나는 “-웃-”의 기능도 前述한 不定法, 直說法, 推測法과 같이 “-웃-”이 缺如된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서만 해명되어야 한다.

- (6) “그릿 ㅅᄃᆞᆫ 맛고저 ᄃᆞᆫ더이다”(釋詳 6:15a)

25) 中世語의 回想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될 것이다.

(7) 쁘레 불 바즌 이리 나 願マ터 ㄷ의더라(月釋 10:30b)

用例(6)은 娑羅門이 護彌에게 하는 말이다. 用例(3)(4)와 비교할 때 完全한 兩方的 通報行爲다. (7)은 地文의 用例로서 (5)와 비교될 수 있다. “-닷-”의 通報機能이 一方的임은 그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1)(2)(5)에는 “놀랍게도, 뜻밖에도” 등의 적극적 情感표시의 부사가, (3)(4)에는 “유감스럽게도, 슬프게도” 등의 소극적 감정표시의 부사가 각각 보충될 수 있다. 그러나 (6)(7)은 텍스트상으로 볼 때 이러한 부사의 보충이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워 보인다.

“-닷-”에 “-오/우-”가 統合되는 用例를 檢討해 보자.

(8) 스펀히롤 조차 ㄷ너 ㄷ히 長安에서 醉ᄃ다소라(原詩省略) (杜諺 16:18a)

(9) 부터 니르지는 解脫을 우리도 得ᄃ야 涅槃에 다ᄃ문가 ᄃ다소니 오ᄃ날 이 쁘들 불 아수ᄃ리로나(釋詳 13:43b)

用例(8)은 主體가 杜甫로서 話者 자신이며 (9)는 대중 가운데서 두 사람이 獨白하는 상황에 쓰인 것이다. 두 用例의 時相은 “ᄃ다다”와 일치한다. 回想法의 “오/우” 統合形은 “-웃-”이 缺如된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 그 기능이 분명해진다.

(10) 네 가난ᄃ미 나 甚ᄃ야 ㄷ ㄷ안티 아니ᄃ블 ᄃ가지로 시름ᄃ다라(原詩省略)(杜諺 24:5b)

(11) “내 상네 이리 니르다니 舍利弗아 아라라”(釋詳 13:60a)

用例(10)의 주체는 두보 자신으로서 (8)과 비교될 수 있고 (11)은 (9)와 관련시킬 수 있다. “-닷-”의 “-오/우-”統合形도 不定法, 直說法과 같이 화자의 정감적 내지 양태적 태도와 관련된다. (8)은 적극적 감정표시의 부사를 보충할 수 있다. 이에 비교될 직한 (10)은 화자의 감정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곧 슬픈 모습으로 浮刻되어 있다. 直說法의 用例(15)를 참조하면 마땅히 “시름ᄃ다다”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화자에게 달려 있다. 語調 등 다른 수단에 의해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생각하면 “-닷-”을 안 쓸 수도 있다. 用例(9)는 “틀림없이” 등의 樣態性 부사를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樣態로써 설명해야 할 것이다.

#### 4.2.5. 推測回想法

推測回想法이란 推測法과 回想法의 統合인 “-(으)리러-”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ᄃ리랏다, ᄃ리라스이다”를 대상으로 한다.

(1) “ᄃ다가 큰 法 즐길 ㅁ수ᄃᄃ ㄷᄃᄃᄃ 부ᄃ ㄷ 爲ᄃ샤 大乘法을 니르시리라스이다(口訣文省略) (法華 2:232)<sup>26)</sup>

(2) ᄃ다가 내 큰 法 즐ᄃᄃᄃᄃ 으로 ㅁᄃᄃ샤미 오라시리랏다(口訣文省略)(法華 2:231b-2a)

26) 같은 法華經을 底本으로 한 月印釋譜에는 다음과 같이 表現되어 있다.

“ᄃ다가 우리 큰 法 즐기는 ㅁ수미 ㄷᄃᄃᄃ 부ᄃ ㄷ 爲ᄃ샤 大乘法을 니르시리라스이다” (月釋 13:36a)

用例(1)은 佛弟子들의 一方的 陳述이다. (2)는 本文에 대한 협주의 用例로서 地文 내지 獨白으로 볼 수 있다. 두 用例가 表示하는 時相은 經驗時 이후이다. 이 語形의 意味는 “-오-”이 缺如된 “하리러라”와의 對比에 依存해야 한다.

(3) “得大勢여...여러가짓 도흔 根源을 시르고 後에 조 千萬億佛을 만나수파 조 이 經典을 닐어 功德이 이리 당다이 부네 하리러라”(釋詳 19:33b-34a)

(4) 네 梵摩羅國 林淨寺에 光有聖人이 五百弟子 드려 겨사 大乘小乘法을 니르샤 衆生을 教化하시 더니 그 數 | 불내 해리러라(月釋 8:90b)

用例(3)은 對話란 점에서 (1)과, (4)는 地文이란 점에서 (2)와 각각 그 通報行爲가 비슷하다. 지금까지 검토한 例文에서는 “-오-”의 插入與否가 統辭構造에 影響을 미치지 않았는데 推測回想法의 경우는 통사구조에 큰 차이가 있다. “하리랴다”의 構文은 假想的 從屬節을 이끌고 있다<sup>27)</sup>(---- 참조). 이러한 特殊性이 어디에 말미암는지는 쉽게 斷定할수 없지만 “하리랴다”도 다른 “-오-” 統合形과 마찬가지로 話者의 態度和 관련지어 說明해야 한다. 用例(1)은 어떤 일이 충족되었다라면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화자가 아쉬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이 缺如된 (3)은 과거의 사건시 이후에 일어날 일을 推定하는 것이다. 用例(2)는 (1)의 協주인데 같은 解釋을 내릴 수 있다. 내가 큰 法을 즐겼더라면 오로지 말기심이 오랜 터인데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등의 부사가 插入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樣態性을 表現한다고 하겠으나 화자의 깊은 의도는 정감성으로 해석된다. “아쉽다. 유감스럽다” 등의 意味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단순히 推定하는 것이다.<sup>28)</sup> 一方的 通報機能과 함께 화자의 情感的・樣態의 態度的 反映이 “하리랴다”의 用法이라 하겠다.<sup>29)</sup>

“하리랴다”의 “-오/우-” 統合形- “\*하리로소라”는 아직 그 用例를 찾지 못했으나 충분히 기대될수 있는 語形이다(§4.1.1.).

#### 4.2.6. 確認法<sup>30)</sup>

確認法이란 話者 標識의 確認法 “-과-”가 先接된, “하과소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確認法의 先語末語尾 “-과-”의 “-오-” 統合形 “\*하팠다”는 나타나지 않고 이에 先語末語尾 “-오/우-”가 統合된 “하과소라”만이 나타난다.

27) 李仁模(1976:164)에도 “-(으)리랴다”가 叙想法(subjunctive mood)만으로 쓰인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하리러니라”도 “하리랴다”와 統辭構造가 같을 수가 있다(§2.2.4.).

28) 地文의 “-더-”는 回想法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언급될 것이다.

29) 靑山別曲의 다음 구절도 推測回想法에 “-오”이 統合된 것으로 이해된다(李仁模 1973:116-122; 1976:164-173)

살어리 살어리랴다 靑山에 살어리랴다(樂章歌詞).

우리가 檢討한 “-오-”의 기능에 의하면 이 用例는 獨白에 가까운 一方的 通報行爲로 간주해야 한다.

30) 中世語의 確認法에 대해서는 Ⅲ장 참조.

(1) 江淹鮑照의 畧 體 | 流傳호매 서로 도라본된 아들 업소물 免과소라(原詩省略)(杜諺 21:31b)

主體는 註의 “言甫 | 與暉로 皆有傳業之子也 | 라”를 참고할 때 두보 자신임에 틀림없으며<sup>31)</sup> 그것이 나타내는 時相은 發話時直前이거나 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正히 이 江南에 風景이 도흐니 곳디는 쏘 너를 맛보과라(原詩省略)(杜諺 16:52b)

用例(2)는 杜甫가 李龜年을 다시 만나게 됨을 確認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1)에는 情感性이 反映되어 있다. 이 시는 두보가 畢暉와 함께 자기들의 學問을 계승해 줄 아들들이 있음을 서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4.2.7. 不定法(2)

不定法(2)에는 推測法 “-(으)리-”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호도다, 호도소이다, 호도소녀, 호도소니; 호도소이다”가 포함된다.

(1) “잘 오도다. 羅卜아”(月釋 23:76b)

(2) “그의 精舍 지우려 터홀 又 始作호야 되어늘 여섯 하나래 그의 가 들 찌비 불씨 이도다”(釋詳 6:35b)

(3) <내 地藏威神力을 보니 恒河沙劫에 다 닐우미 어렵도다>(月釋 21:172a)

(4) <恭敬호습는 法이 이러호 거시<sup>로</sup>다>(釋詳 6:21a)

用例(1)은 세존이 출가하는 羅卜에게 하는 말로서 問答이 아닌 一方的 通報行爲다. (2)는 수달의 물음에 대한 사리불의 답변인데 對話라기보다는 一方的 通報行爲의 性格이 강하다. (3)은 세존이 관세음보살에게 지장경을 流布할 것을 勸告한 뒤에 偈로써 하는 말이니 獨白으로 볼 수 있다. 用例(4)는 首陁會天이 수달의 버릇없는 行動을 보고 네 사람으로 化身하여 세존을 옹위하니 수달이 마음이 편치 않아 (4)와 같이 말하고 마침내 세존을 받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수달의 말은 완전한 獨白이다.

위의 用例들의 時相은 不定法(1)과 완전히 일치한다. 用例(1)은 事件時가 發話時와 거의 일치하거나 發話時 直前으로 해석된다. (2)는 時間副詞 “불씨” 등으로 미루어 事件時가 發話時보다 훨씬 앞선다. 그런데 (3)(4)의 事件時는 發話時와 일치한다. 이는, 不定法(1)의 “-웃-”과 같이 用言의 動作類의 特性과 관련된다. 主體는 모두 非話者다. 用例(1)은 2人稱, (2)~(4)는 3人稱이다(—— 참조)

“호도다”의 호쇼셔體도 兩方的 通報기능이 다소 우세하다는 점 이외에는 호리體와 큰 差異가 없다.

(5) “小人이 떠실 지피 잇디 아니호다니 얼우시니 어제 호 디위 속절업시 든너지도쇠이다”(朴初上: 52b)

31) 허웅(1975:798)에도 같은 사실이 지적되어 있으나 形態素를 識別하는 기준은 다르다(後述).

- (6) “太子 | 그런 사락미시면 이 이리 어렵도소이다”(釋詳 11:19b)
- (7) “天女를 보건넌 내 거지비사 눈먼 獼猴 곧도소이다(月釋 7:12b)
- (8) “羅 | 이 룬디면 내 빛소에서 난 야기로소이다”(月釋 23:86a)

用例(5)는 두 사람의 兩方的 通報行爲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6)은 大臣이 太子의 말에 應酬하는 것이다. 더우기 太子의 말이 “내 모미 썬죽하도다”와 같이 “-도다”로 끝나 있는 것은 “-도소이다”와의 尊卑法上的 關聯性을 잘 뒷받침한다(§4.1.1.). 用例(7)은 難隨가 부처에게, (8)은 獄主의 陳述에 대해 羅 |의 어머니가 意見을 陳述하는 것으로서 一方的 通報機能이 길다.

時相은 ㅎ라體와 같이 用言의 動作類의 特性에 말미암는다. 用例(5)는 時間副詞 “어제”를 고려하면 事件時는 發話時보다 앞서며 (6)(8)은 發話時와 일치한다. 用例(7)은 사정이 좀 다르다. 부처가 天女를 보고 온 難隨에게 “네 거지비 고보미 天女와 엇더ㅎ더뇨”라고 묻자 (7)과 같이 답변한 것이다. 이때의 “-듯-”은 形容詞 “곧-”에 統合되기는 했어도 눈먼 미후같이 느낀 것은 天女를 본 당시이므로 回想法 “-디-”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러한 用法은 드물고 形容詞와 指定詞와 統合될 때는 事件時가 發話時와 일치한다.<sup>32)</sup> ㅎ쇼서體에 있어서도 主體는 非話者이다(一一 참조).

다음으로는 疑問法에 나타나는 語形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9) “ㅎ 大藏教 | 이 사관 거시어시니 아래 이 無百字도 사기도소니야”(口訣文省略)(蒙法:60b)
- (10) “趙州사 쓰든 果然 그리ㅎ도소니야 아니ㅎ도소니야”(口訣文省略)(蒙法:56-57)

用例가 모두 具體的 狀況을 파악하기 힘든 蒙山法語에만 나타난다. “하리로소녀”(後述)로 미루어 正常的 對話로 생각된다. 時相은, 用例(9)에서는 事件時가 發話時에 先行하고 (10)에서는 일치한다. 前者는 統合用言이 [-상태성]을 띠고 있을뿐 아니라 時間副詞 “아래”로 미루어 그러함의 틀림없으며 後者는 [+상태성]의 動作類를 表示하는 데 말미암는다. 主體는 2人稱 내지 3人稱으로 想定된다.

- (11) 尙書의 功業이 千古사 사락미게 건너 뛰도소니 荊州를 雄히 놀리쇼물 내 한아미물 니엇도다  
(原詩省略)(杜謔 25:48a)
- (12) 우리 설흔 사락미 각각 돈 일빅곰 내면 대묘히 돈이 삼천나치로소니 유에 브리로나(初朴上:1b)

用例(11)은 獨白으로 보인다. 이곳의 尙書는 荊南 節度使 衛白玉을 가리킨다. 그가 형주를 다스린 杜甫의 먼 祖上 杜預의 뒤를 계승하게 되었음을 찬양한 것이다. (12)는 봄을 맞아 돈을 거두어 봄놀이하러 가자는 것을 大衆에게 提議하는 것으로 一方的 通報機能이 길다. “ㅎ도소니”에 “ㅎ도다” 등이 呼應한다는 것은 두 語形에 나타나는 “-듯-”의 共通機能

32) 南廣祐(1975)에는 “-도소이다”의 意味를 “-디이다, -디이다”로 풀이하고 있으나 우리의 用例(7)이 나와 있지 않는데도 이렇게 풀 것은 再考해야 할 것이다.

을 暗示하기도 한다(―― 참조). (11)도 그러하다. 時相과 主體는 앞의 경우에 類推해서 생각할 수 있다.<sup>33)</sup>

不定法(2)에 나타나는 “-뫓-”의 기능은 무엇일까? 그것은 “-뫓-”이 缺如된 “하다, 하녀, 하니”와의 비교에 의해 解明되어야 한다. 한편 “-웃-”이 插入된 不定法(1)의 語形 “하샤다”와도 긴밀한 關係를 맺어야 한다.

用例(6)을 不定法(1)의 用例(8)(§4.2.1.)과 비교해 보자. 편의상 그 用例를 다시 든다.

(13) “太子入 모미 傷하야 命이 머디 아니하시이다”(釋詳 11:21b)

用例(6)은 父王의 重病에 필요한 눈동자와 골수를 제공하겠다는 태자의 말을 듣고 대신들이 하는 말이다. 계속하여 친하에 아까운 것이 목숨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化자의 消極의 情感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대신들의 意圖는 태자를 除去하는 目的이 있었던 것이니 궁극적으로는 化자의 積極적 感情이 含蓄되어 있다. 이에 대해 用例(13)은 태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6)에는 “-뫓-”이 插入되었고 (13)에는 그것이 缺如된 것이 아닌가 한다. 化자의 意圖와 관련된 이러한 意味는 不定法(1)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4.2.1.). 이러한 情感性을 表示하는 것은 用例(6) 이외에도 (1)(2)(5)를 追加할 수 있다. 用例(1)(2)는 “다행히도” 등의 부사가, (5)는 “뜻밖에도” 등의 부사가 補充될 수 있기 때문이다. 用例(3)(4)(7)(8)은 오히려 樣態的인 意味와 관련되지 않나 한다. “진실로, 정말” 등의 부사가 어울릴 수 있음을 보아서이다.

疑問法에서는 樣態的인 意味가 파악된다. 用例(9)(10)을 다음 用例와 비교해 보자.

(14) 이는 萬丈 허뫓 得하니아 馬祖 허뫓 得하니아(蒙法:31ab)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斷定할 수 없으나 (9)(10)은 청자에게 確信性 있는 答辯을 요구하지 마는 (14)는 단순한 물음으로 간주된다. 不定法(1)의 “하스다”와 直說法의 “하스스다”에서 볼 수 있었던 用法과 軌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4.2.1;4.2.2.).

接續의 連結語尾 “하도소니”는 “-뫓-”이 缺如된 “하니”와의 비교에 의해 意味가 究明되어야 한다.

(15) “이 마장 豆餵 藥이니 色香美味 다 마즈니 너희들히 머그라”(月釋 17:18a)

이는 毒藥을 잘못 먹은 아들들에게 아버가 救療할 약을 주며 하는 말인데 用例(12)와 다른 점은 兩方的 通報行爲인 對話에 나타나는 것이다. “-뫓-”이 插入되면 一方的의 陳述의 성격이 짙어지고 따라서 化자의 情感 내지 樣態의 態度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1)

33) 이런 例들은 杜詩諺解의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李丙疇(1970:134, 188, 190, 295, 298, 319) 참조.

에서는 積極의 情感性이, (12)에서는 樣態性이 각각 파악된다. 前者에는 “놀랍게도”와 같은 부사의 補充이 가능하고, 後者에는 “틀림없이”등의 부사가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論議해 본 “-듯-”은 不定法(1)의 “-듯-”, 곧 “-듯-”으로 바꾸어도 조금도 意味의 差異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는 “-듯-”과 “-듯-”의 意味上的 同質性을 保證해 준다(後述).

“-하도다”에 “-오/우-”가 統合된 形式을 검토해 본다. 이 形式에는 “\*하도소라”의 合쇼셔體인 “\*하도소이다”의 同化形 “하도소이다”만 들 수 있을 듯하다.

(16) “내 몬져 드도소이다”(釋詳 24:18b)

이 用例는 “곳 치셔미 뉘 몬져 이 門 안해 드노”라는 王의 물음에 대해 모진 놈이 答하는 것이다. 時相은 시간부사 “몬져”가 아니라 하더라도 統合用言이 [-상태성]의 動作類를 띠고 있으므로 事件時는 發話時에 先行한다. 이런 점에서 위의 用例는 不定法(2)의 테두리에 들어오며 主體가 話者인 점에서 “-오/우-”의 統合形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形式의 意味는 “-듯-”이 缺如된 “호이다”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서도 究明될 수 있고 “-入-”이 插入된 “하소이다”와의 관련에 의해서도 그 성격이 規定될 수 있다.

不定法(1)의 用例 (14)~(16)(§4.2.1.)은 화자가 자신에 관한 일을 單純히 叙述하는 데 대해 “\*하도소라” 語形은 樣態성과 관련된 意味를 表示한다. 위의 用例(16)은 “틀림없이, 정말로” 등의 부사를 補充할 수 있다. 이 경우 “드소이다”로 바꾸어도 意味上的 差異가 없다. 이는 不定法(2)의 “\*하도소라”의 意味가 不定法(1)의 “하소라”와 同質的임을 말하는 것이다(後述).

4.2.8. 推測法(2)

推測法(2)는 推測法 “-(으)리-”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하리로다, 하리로소이다, 하리로소녀, 하리로소니잇가, 하리로소니; 하리로형 다, 하리로소이다”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1) <내 솔 勝蠻(승만)이 聰明하니 부더웃 보수병면 당다이 得道를 쥘리 하리니 사람 브려 닐어사 하리로다>(釋詳 6:40b)

(2) 壯 훈 양지 머뜨디 아니호미 돌논물 ㄱ툼 전츠로 가줄비디 물하리로다(口談文省略)(楞嚴 2:5b)

用例(1)은 波斯匿王과 末利夫人이 부처를 뵈고 하는 말이다. 正常的 對話라면 合쇼셔體를 써야 할터인데 하리體로 되어 있는 것은 청자를 별로 意識하지 않는 獨白임에 그 原因이 있지 않나 한다. (2)는 협주에 나오는 말로서 地文이다. (1)의 事件時는 發話時 이후이며 (2)는 發話時와 일치한다. 主體는 둘다 “일반사람들”로 想定된다.

(3) “父王이 오늘…菩提心을 어루 發하셔리로소이다”(=父王이…發…菩提心이 사소이다)(法華 7:135b-136a)

- (4) “聖子 | 나사 輪王이 드의서러니 出家하시면 正覺을 일우시리로소이다”(月釋 2:23b)  
 (5) “우리들히 이 노를 자면 사를 옷바비야 닐곱누라도 굿다 아니하리로소이다”(月釋 10:28b)

위의 用例은 모두 “하리로다”의 ㅎ쇼서體이다. 用例(3)은 두 아들이 공중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합장하며 하는 말로 一方的 通報行爲다. (4)는 짐치는 사람이 王에게 해몽하는 것으로 一方的 陳述의 性格이 짙다. (5)는 五百群賊이 爲頭 도적에게 하는 말로 역시 一方的 通報行爲의 범주에 든다. 時相은, 用例(3)에서는 事件時가 發話時와 일치하거나 직후 일 것으로 짐작되며 (4)(5)는 發話時 이후다. 主體는, 用例(3)(4)는 3人稱임에 틀림없으나(— 참조) (5)는 설명이 필요하다. 中世語의 “굿다”는 自動詞와 他動詞에 通用되므로 (5)의 “굿다”의 主語를 他動詞일 때는 “우리들ㅎ”로, 自動詞일 때는 “옷밤”으로 잡을 수 있다. 前者라면 “-똥-”에 “-오/우-”가 統合된 “ㅎ도소이다<sup>2</sup>”로 볼 수 있고 後者라면 “ㅎ도소이다<sup>1</sup>”이 된다. 여기서는 우선 後者로 간주해 둔다.<sup>34)</sup>

疑問法에 나타나는 推測法의 “-똥-”도 不定法의 그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

- (6) “어머니물 아라 보리로소니잇가”(月釋 23:86b)  
 (7) “이게 모맛는 이 세계며 다른 세계엿 諸菩薩天龍鬼神을 네 數를 알리로소니여 모르리로소니여”(釋詳 11:4b-5a)<sup>35)</sup>  
 (8) “네 바루 알리로소녀”(初朴上: 14b)

用例(6)은 獄主가 目連에게 묻는 말인데 답변은 “몰라 보에라”이다. (7)은 세존이 文殊師利에게 묻는 말로서 답변은 “내 神力으로 一千劫에 헤여도 몰내 알리로소이다”로 되어 있다. (8)은 형과 동생의 對話로 답변은 “알리로다”이다. 이로써 우리는 不定法(2)의 “ㅎ도소녀”와 함께 推測法의 “하리로소녀”는 正常的 通報行爲에 쓰임을 確認할 수 있다. 用例(6)은 어머니를 만나기 바로 전이니 事件時는 發話時에 後行하나 (7)(8)은 발화시와 일치한다. 위의 例文의 主體는 모두 말받는 상대인 第2人稱이다. 기대되는 답변의 主體는 第1人稱으로서 “-오/우-”가 統合된 活用形을 要求하게 된다(後述).

- (9) “이 세계엔 千佛이 나리로소니 이 劫 일후므란 賢劫이라 ㅎ저”(月釋 1:40ab)  
 (10) “관인들히 ㅎ마 귀산하리로소니 썰리 수을 들어 가져 오라”(初朴上:7a)  
 (11) “네 이런 원 일들히 너는 일홍 사를 로호물 값간도 몸 보리로소니 오늘부터 後엔 나흔 아들 마티 호리라”(月釋 13:24b-25a)  
 (12) 이런 드로 반드기 마시 이서러어놀 마술 어더도 得디 몰하리로소니 아니 和흔 디 아니로다(口訣文省略)(楞嚴 2:102a)

用例(9)는 四禪天이 자기 무리들에게 一方的으로 하는 말이다. (10)(11)도 그러한 狀況

34) “굿다”의 統辭特性에 대하여는 許維(1955:26-27) 참조.

35) 같은 佛經을 底本으로 하고 있는 月印釋譜(21:14a)에는 “알리로소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하여 “하리로소니여”와 “하리로소녀”는 隨意變形임을 알 수 있다.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時相은 모두 發話時 이후이며 主體는 2人稱 (11), 3人稱(9,10) 내지 그와 가까운 것(12)으로 볼 수 있다.

推測法(2)에 나타나는 “-뫼(-뫼)-”의 意味는 不定法(1)의 “-뫼-”과 비슷하다. “-뫼-”은 그것이 缺如된 “하리라, 하려, 하리니”와의 비교에 依支해서 파악되어야 하고 “-오-”이 插入된 推測法(1)의 語形과도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

(13) “魔鬼들허 다 물러 호터 가리이다”(月釋 21:126b)

(14) “이 世界들허 어루 사랑하야 그 數를 알려 물하려”(月釋 17:5a)

(15) “네 오는 뒤에 佛事를 מצ장하리니 나 滅度후 後에 내 弟子를 너를 마찌노라”(釋詳 11:14a)

用例(13)은 主命이라는 鬼王이 세존에게 하는 말로서 用例(3)과 比較될 수 있다. 後者는 父王의 行爲를 肯定的으로 받아 들이면서 그것을 推測·確認하고 있다. “어루” 등의 樣態副詞가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13)은 텍스트上으로 볼 때 화자의 樣態的 態度 같은 것이 읽혀지지 않는다. 단순한 推定이 아닌가 한다. 用例(14)는 세존이 善男子에게 하는 말인데 (7)(8)과 比較될 수 있다. 같은 動詞에 “-뫼-” 插入形과 缺如形이 交替·統合된 例다. 統合與否가 統辭構造에 미치는 影響은 전혀 없다. 그런데 (14)에 대한 答변은 다음과 같다.

(16) “...世尊하 이 곤한 世界들허 無量無邊호도소이다”(月釋 17:5b)

“호도소이다”로 끝나 있다는 것은 (14)도 (7)(8)과 같이 “알리로소녀, 물하리로소녀”로도 나타날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는 화자에게 매어 있다. 語調 등 다른 方法에 의해 화자의 樣態的 態度가 表示되었기 때문에 答변에서 “-뫼-”이 插入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화자는 意圖의 介入없이 물었는데 청자는 그것을 介入시켰다고도 解釋할 수 있다. 用例(15)는 世尊이 金像에게 하는 말로 (9)~(12)의 比較對象이 된다. 전자는 화자가 주체의 未來의 行爲를 凡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뫼-”이 缺如되었으나 後者는 話者의 樣態的 態度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틀립없이”와 같은 樣態副詞의 補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論議에 立脚할때 推測法(2)는 推測法(1)로 바꾸어도 意味의 變質을 가져 오지 않는다. 後者의 例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두 推測法의 가치의 同質性과 직접 관계가 있다(後述).

“하리로다”에 “-오/우-”가 統合된 “\*하리로소라”의 形式을 檢討해 보자. “-오/우-” 統合形은 חסש체인 “하리로소이다”와, חסש체인 “하리로청다”만 보인다.<sup>36)</sup>

36) “-오/우-”가 統合된 “하리로다”의 哈拉體는 “\*하리로소라”로 假定한 바 있는데 (§4.1.1.), 이 語形은 실지로 나타나는 일이 없고 第一人稱과 呼應하는 “하리로다”의 語形만 보인다.

내 바르 알리로다(林初上:14b)

哈拉體에서는 “\*하리로소라”와 “하리로다”가 形態上的 合流를 경험했는지도 알 수 없으나 “하리로다”는 일단 “-오/우-”가 統合되지 않은 形式으로 다룬다.

(17) “(어머니를) 地獄에도 묻 보수불리로소이다”(月釋 23:81b)

(18) “나는…바리 알풀씨 길흔 물너리로소이다 이 짜히 어드메잇고”(月釋 8:94a)

用例(17)은 지옥에서 어머니를 찾아헤매며 부르짖는 말로서 거의 獨白에 가깝다. (18)은 一方的 陳述에 가깝다. 원앙부인이 왕과 함께 梵摩羅國 林淨寺로 가는 도중에 比丘에게 하는 말이다. 時相은, (17)은 發話時 이후이고, (18)은 發話時와 일치한다. 앞서 든 “\*호리로소라”의 ㅎ야씨體 用例(7)(§4.1.1.)을 다시 取해 보기로 하자.

(19) “어제 그딛 마물 드로니 믈수매 來往하야 너디 물호리로소이다”(口訣文省略)(內訓 2下:37a)

이 用例는 ㅎ야씨體다. 主體가 화자로서 “-오/우-”의 統合形으로 간주된다. “-못-”(뎡)에는 回想의 意味가 파악된다. “-뎡-”이 單獨으로 쓰였을 때 回想의 用法이 있었음과 有關하다(§4.2.7.의 用例 (7) 참조). 위의 用例의 事件時는 經驗時와 일치한다. “호리로다”의 “-오/우-” 統合形은 “-못-(뎡)”이 缺如된 “\*호리오이다, \*호리왕다”와의 比較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우-”가 “-(으)리-”에 先行하므로 “호리라, \*호링다, 호리이다”와의 비교에 依存해야 한다. 구체적인 引例 없이도 意味 파악이 가능하다. (17)(18)에는 情感性이, (19)에는 樣態性이 각각 파악된다. 前者에는 “유감스럽게도, 슬프게도” 등의 부사를, 後者에는 “정말” 등의 부사를 각각 補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0. 필자는 지금까지 感動法과 관련된 形態素들을 確認하고 이를 바탕으로 使用上の 制約과 時相을 살펴보고 意味上的 特性을 話者의 사태에 대한 態도와 관련시키면서 究明해 보았다. 圖表 1(§4.1.3.)을 意味上的 共通性에 따라 다시 調整함으로써 要點을 整理하고 感動法에 관련된 既往의 意見들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4.3.1. 필자의 檢討 結果에 의하면 不定法(1)과 (2), 推測法 (1)과 (2)는 서로 統合될 수 있다. 使用面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時相에 있어서도 共通性을 띠고 있으며 意味上으로도 差異點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不定法과 推測法의 두가지 형태는 수의적인 形態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를 口訣文과 翻譯文과의 關係에서 밝혀 보려고 한다.

앞에서 우리는 “-(으)샏-”이 당시의 言衆에게 “-(으)샤-”와 “-웃-”의 統合體로보다는 오히려 한 單位로 認識되었음직한 論議를 본 일이 있다(§4.1.1.). 15世紀의 言語資料의 대부분은 口訣文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에 맞추어 한글 번역이 이루어졌으리라는 所論이 있다.<sup>37)</sup> 이에 의하면 당시 하나의 單位로 굳어진 “-(으)샏-”이 번역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점은 口訣文의 절대적 영향과 관련된다. “-(으)샏-”으로 나타난 口訣文이 번역문에 그대로 反映된 不定法(1)의 用例(1)(3)(5)(§4.2.1.)과 推測法(1)의 用例 (1)(2)(§4.2.3.)가 그것이다.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 나타나는 “-(으)샏-” 用例도 口訣文이나 다른 사정의 영향을 받았을

37) 安秉禧(1965b:66)에 疑問法語尾를 中心으로 口訣文이 번역문에 미친 영향이 지적되어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sup>38)</sup> 그러나 推測法(2)의 用例(3)은 사정이 다르다. 口訣文에는 “-(으)샷-”인데 번역문에는 “-돛-”이 選擇되어 있다. 이는 譯者가 口訣文에 구이되지 않고 당시의 口語를 反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39)</sup> 中世語의 자료상의 特異性에 비추어 볼 때 不定法과 推測法의 두 형태의 統合·叙述이 合理化될 수 있음을 確認하였다.

앞서 提示했던 圖表 1을 實在形을 中心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示는 隨意的 交替를 意味한다.

구분 語末語尾 叙法	“옷, 돛, 入” 形態				“옷, 돛, 入”과 “-오/우-” 統合形態		
	說明法	疑問法	命令法	接續	說明法	疑問法	接續
不定法	ㅎ샷다, ㅎ샤스이다 <sup>1</sup> / ㅎ도다, ㅎ도소이다 <sup>1</sup>	ㅎ도소너	ㅎ야스라	ㅎ도소너	ㅎ소라 ㅎ소이 다 <sup>2</sup> / ㅎ도소이 다 <sup>2</sup>	ㅎ슨다	ㅎ소너
直說法	ㅎ눗다, ㅎ노소이다			ㅎ노소 너 <sup>1</sup>	ㅎ노소라	ㅎ눗는다	ㅎ노소너 <sup>2</sup>
推測法	ㅎ리샷다, ㅎ리샤스이 다 <sup>1</sup> / ㅎ리로다, ㅎ리로 소이다 <sup>1</sup>	ㅎ리로소너 ㅎ리로소너잇 가		ㅎ리로소 너	ㅎ리로싱다 ㅎ리로소이다 <sup>2</sup>		
回想法	ㅎ닷다, ㅎ다스이다				ㅎ다소라		ㅎ다소너
推測回想法	ㅎ리랏다, ㅎ리라스이 다						
確認法					ㅎ과소라		

圖表 2

1. 感動法의 形態素는 “-옷//돛-”과 그리고 “-入-”이 있다. 前者의 두 형태는 隨意的 交替關係에 있다. “-옷-”이 保守性이 짙은 文語體의 형태라면 “-돛-”은 口語的 特性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入-”은 “-돛-”과 수의적 交替關係에 서는 일도 없지 않으나 “-오/우-”가 統合된 설명법에 局限되어 있다. 따라서 “ㅎ야스라, ㅎ슨다, ㅎ소너, ㅎ눗는다”에 나타나는 “-入-”은 “-옷//돛-”과 형태론적으로 제약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感動法은 單獨의 場面과 一方的 通報 功能이 우세한 相關의 場面에서 많이 나타난다.

3. 感動法의 事件時는 不定法의 경우는 統合用言의 動作類의 特性에 따라 決定되고 다른 叙法에서는 그것의 時相上의 特性에 依存한다.

4. 感動法은 說明法에서 主體가 非1人稱일 때는 情感性이 우세하며 1人稱일 때는 樣態性이 우세하다. 그밖의 환경에서는 樣態性이 절대적이다. 感動法 形態素는 화자가 사태를 情感的으로나 樣態的으로 파악할 때 쓰인다고 말할 수 있다.

4.3.2. 필자가 確認한 一群의 形態素를 包含한 語形에 대하여 처음으로 文法的 意味를 부여한 것은 李崇寧(1961)이다. 그는 “-옷-, -돛-, -入-”이 插入된 語形과 話者 標識의 先

38) 不定法(1)의 用例 (2)(4)(6) (§4.2.1.) 참조

39) 口訣文의 “-도다”가 번역문에서 “-돛다”로 바뀐 例文이 있는데 이는 理解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直說法의 用例 (1)(3)(7)(8) 참조 (§4.2.2.).

語末語尾 “-오/우-”가 介在된 語形을 통틀어라서 「感想法」이 부르고,

話者が 어느 客觀的 事實에 主觀的으로 價値를 매겨 表現하는 叙法(李崇寧 1961:182)

이라 규정하면서 叙法의 一種으로 간주하였다. 劉昌惇(1964a:305-334)은 우리의 感動法 形態素가 포함된 語形들을 確認形, 感嘆形, 強調形으로 불려, 感嘆의 意味 이의 確認·強調의 기능이 있음도 언급하였다.

이상 두 文法家의 종합적 意味 파악에 대해서 形態論的 배려 밑에 單位를 識別하고 意味를 부여한 것은 安秉禧(1967)이다. 그에 의하여 “-웃-, -똥-, -스-”이 처음으로 分離되었다. 그는 說明法에 나타나는 語形만을 論議의 對象으로 하여 李崇寧(1961)의 感想法의 體系를 어느 정도 確立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허웅(1975:923)은 방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종전에 일부에서 強調의 意味를 賦與해 왔던 필자의 確認法 形態素 “-거/어-”(§3.1.1.)와, 필자의 感動法 “-웃-//똥-, -스-”이 插入된 “-도-, -노-, -다-, -샤-, -소-, -스-”을 대상으로 「강조·영탄법」이라 부르고 다음과 같이 그 意味를 규정하였다.

말의 표현을 힘주어 하려거나, 말의 어조를 나채롭게 하려거나 또는 말에 어떠한 경서를 부여하려 할 때 쓰이는 여러가지의 안팎음씨끝이 있는데, 이 씨끝들이 나타내는 문법적인 뜻은 꽤 나채로와서 한말로 그 뜻을 표현하기 어려우나 여기에서는 「강조·영탄법」이란 이름으로 뭉쳐 두기로 한다(방점——원문대로)

精密한 形態素의 分析이 전체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李崇寧(1961a)나 劉昌惇(1964a)와 큰 차이가 없으며, 確認法의 “-거/어-”를 感動法과 統合·叙述한 것은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나 한다. 그러나 意味의 규정에 있어서는 이전의 文法家들보다 깊이를 더하고 있다.

우리가 確立한 “-똥-”에 대한 색다른 견해가 있다. 李男德(1971)은 “-도다”의 “-도-”를 話者 標識의 先語末語尾 “-오/우-”의 形態論的 異形態라 간주하고 兩者를 「情動法」이란 보다 包括的 범주에 소속시켰다. “-오/우-”系列은 主觀情動法, “-똥-”系列은 客觀情動法이라 하였다. 그의 情動法體系는 意味 파악에 있어서는 이전의 文法家들이 미치지 못한 재미 있는 사실을 많이 찾아내었으나 정밀한 形態素 分析의 바탕위에 서지 못했다. “-도-”가 “-오/우-”의 異形態가 되려면 制約條件만 다르고 意味는 같아야 할터인데 主觀과 客觀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다른 形態素임을 暗示한다. 意味 파악에 있어 구조적 뒷받침이 缺如된 것이 아닌가 한다.

종전의 「感想法」 내지 「강조·영탄법」은 어떤 意味에서는 妥當한 名稱이라 할 수 있다. 說明法에서 主體가 非1人稱일 때는 情感의 用法이 우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情感性和 樣態性이 다같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前者에 置重하여 感動法이라 부르고자 한다. 感嘆法이라 하지 않는 것은 語末語尾에 依存하는 現代語의 感嘆法語尾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先語末語尾에 依存하는 中世語의 구조적 양상을 尊重한 所致인 것이다.

4.3.3. 說明法뿐 아니라 疑問法, 命令法, 接續의 連結語尾에 두루 나타나는 中世語의 感動法 體系가 語末語尾에 依存하는 文體法으로서의 感嘆法 語尾로 변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또 中世語에는 우리가 確認한 感動法 이의 一聯의 感嘆法 語尾가 있다(허웅 1975:930-1). 이들 語尾와 우리의 感動法이 갖는 相關關係는 이곳에서 다루지 않는다.

## V. 總 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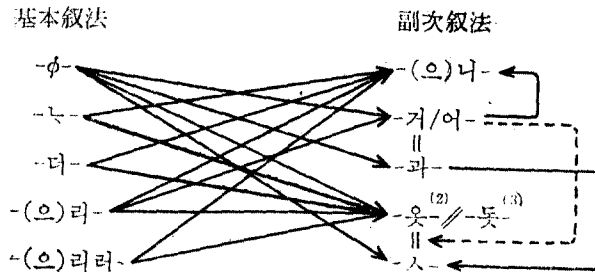
### ——樣態·情感의 叙法——

5.0. 종전의 中世語의 文法研究에서 漠然히 「확정법」내지 「定立法」 「強調」내지 「完了」 「感想法」내지 「강조·영탄법」으로 불려오던 一聯의 語形을 現代語에 관한 知識을 발판으로 하여 形態論의 配慮를 深化시키고 使用面의 制約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究明하여 보았다. 原則法,, 確認法, 感動法이란 이름 아래 고찰해 왔던 先語末語尾 “-(으)니-”, “-거/어-”, “-웃-// -똥-”, “-入-”의 構造의 樣相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總括하여 中世語의 樣態·情感의 叙法範疇를 體系化해 보려 한다.

#### 5.1.

##### (1) 構造의 共通性

原則法, 確認法, 感動法은 不定法,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과 같이 時相과 깊은 關聯을 맺고 있는 基本叙法範疇를 바탕으로 形成된다. 細說하면 原則法은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推測回想法과 確認法을, 確認法은 不定法과 推測法을, 感動法은 不定法,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推測回想法과 確認法을 土臺로 하고 있다. 留意할 것은 原則法과 感動法이 確認法을 바탕으로 成立되는 일이다. 話者의 態도와 관련시켜 해석해 온 原則法, 確認法, 感動法을 副次叙法으로 불려 基本叙法과의 統合樣相을 圖式化한다. 不定法은 편의상 ϕ로 表示한다. 화살표로써 統合方向을 지시하기로 한다.



- 1) 點線은 杜詩諺解 卷21에 나타나는 “-것다”를 가리킨다(§3.3.3 참조).
- 2) “-(으)리-”와 “-웃-// -똥-”의 統合은 “하리로다”를 가리킨다(§4.1.1).
- 3) “-(으)리러-”와 “-웃-// -똥-”의 統合은 “하리랴다”를 가리킨다(§4.1.1).

## (2) 意味上の 共通性

副次的 叙法 形態素들이 나타나는 텍스트는 대체로 一方的 特性이 강한 通報行爲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一方的 特性은 이들 形態素들의 意味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들이 缺如되면 兩方的 通報行爲의 特性을 띠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副次的 叙法 形態素들이 表示하는 意味는 時相과는 無關하고 오히려 화자의 사태에 대한 態度를 反映하는 것으로 보았다. 原則法과 確認法에서는 樣態性을 읽을 수 있고 感動法에서는 情感性을 支配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感動法에서 본 바와 같이 情感性과 樣態性은 交錯되는 側面이 많았고 非終結語尾에서는 樣態的인 意味가 거의 絶對적이어서 確認法 形態素가 表示하는 意味와 差異點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樣態性을 表示하는 原則法, 確認法과 情感性을 表示하는 感動法을 하나로 묶게 하는 意味上的 特殊性이 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先語末語尾라는 構造的 共通性과 이곳의 意味上的 特殊性에 立脚하여 強調法으로 처리한다. 現代語의 強調法은 原則法과 確認法밖에 없는데(高永根 1965:§3.6.2.), 中世語는 感動法이 추가되어 셋이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5.2. 필자가 中世語의 樣態·情感의 叙法 곧 強調法을 體系化하면서 부딪친 가장 어려웠던 점은 意味把握의 方法이었다.

強調法의 形態素가 插入된 텍스트는 그것이 缺如된 텍스트와 比較하는 方式을 주로 擇했다. 이른바 統合的 關聯性의 解明에 重點을 두었다. 이에 앞서 그 텍스트가 나타나는 場面の 특수성도 깊이 고려하였다. 이것만으로는 意味의 客觀的 叙述이 어려워 그 텍스트의 앞뒤의 意味를 파악하여 樣態性과 情感性에 관련되는 副詞를 補完하는 方式을 採擇하였다. 곧 強調法 形態素가 使用된 텍스트에는 樣態 및 情感副詞의 插入이 자연스러운 이유를 찾으려 하였고, 그것이 缺如된 텍스트에는 그러한 부사의 插入이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운 緣由를 개어 보았다.

5.3. 原則法, 確認法, 感動法을 包括하고 있었던 中世語의 樣態·情感의 叙法 範疇 곧 強調法이 原則法, 確認法을 包括하는 現代語의 體系로 변모하는 과정은 다루지 않는다. 이 문제는 原則法, 確認法, 感動法의 변천 모습이 밝혀진 뒤에야 어느 정도 完壁한 叙述이 가능해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高永根(1965), 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 —先語末語尾의 것을 中心으로—, 國語研究 15
- (1974),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10-1
- (1975), 現代國語의 語末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 —非終結語尾의 것을 中心으로—,

## 應用言語學 7-1

- (1976), 現代國語의 文體法에 대한 研究 —叙法體系(續)—, 語學研究 12-1
- (1978), 形態素의 分析限界, 언어학 3
- (1980), 中世語의 語尾活用に 나타나는 “거/어”의 交替에 대하여, 國語學 9
- 金忠會(1972), 十五世紀 國語의 叙法體系試論, 國文學論集 5•6 (檀國大學校)
- 나진석(1971), 우리말의 매매김 연구, 과학사
- 南廣祐(1975), 古語辭典補訂, 東亞出版社
- 朴炳采(1968), 高麗歌謠語釋研究, 宣明文化社
- 安秉禧(1963), 「즈가」語攷, 국어국문학 26
- (1965a), 十五世紀國語의 共通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8.
- (1965b),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 6 (建國大學校學術研究院)
- (1967), 韓國語發達史 “文法史”, 言語文學史 V,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 梁柱東(1947),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 李基文(1972), 改訂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Lee, Ki-Moon (1977), Geschichte der koreanischen Sprache/dt. Übers. hrsg. von Bruno Lewin, Wiesbaden: Reichert.
- 李男德(1971), 十五世紀 國語의 情動法研究, 문교부연구보고서, 어문학계 6
- 李丙疇(1970), 杜詩諺解批注, 通文館
- 李承旭(1967), 15世紀 國語의 先語末接尾辭 <-가/거->, 國文學論文集 1 (檀國大學校)
- (1973),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一潮閣
- 李崇寧(1961a),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 (1961b), 「샷다」考, 震檀學報 22
- (1966), 國語學論叢, 東亞出版社
- (1972), 國語學研究, 螢雪出版社
- 李仁模(1976), 古典國語의 研究(增補改訂版), 宣明文化社
- 유창돈(1963), 선행어미 -가/거-, -아/어-, -나- 고찰, 한글 132
- (1964), 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社
- 崔泰榮(1965), 中世國語의 prefinal ending [-거-]에 관한 研究, 國語研究 17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응(1955), 용비어천가, 정음사
- (1958), 插入母音攷, 論文集(人文社會科學) 7(서울大學校)
- (1962), 또다시 人稱·對象活用語尾에 對하여, 語文學 10
- (1963), 中世國語研究, 정음사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河野六郎(1950), On the Intensive Stem of Middle Korean, 言語研究 16(日本言語學會)

油谷幸利(1978), 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 朝鮮學報 87

Helbig, G. & J. Buscha (1975), Deutsche Grammatik,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Zusammenfassung»

**Zur Modalität und Emotionalität in der Verbalflexion  
im Mittelkoreanischen**

**Yong-Kun Ko**

1. In dieser Untersuchung beschäftige ich mich mit der Identifizierung der modalität- und emotionalitätsbezogenen, präfinalen Endungen sowie mit der Auffassung ihrer semantischen Eigenschaft. Die Modi, die sich auf die Modalität und Emotionalität beziehen, sind die folgenden: Apodiktiv, Assertiv und Exklamativ.

2. Der Apodiktiv *ni* wird nur in dem Deklarativ identifiziert. Obwohl man auch die ähnlichen Formen in dem Interrogativ und der attributiven Form findet, ist es kein Apodiktiv hinsichtlich des strukturellen und semantischen Aspekts. Die apodiktive Form steht nach dem Indikativ, Retrospektiv, Präsumptiv und Assertiv. Die kommunikative Funktion der Texte, in denen der Apodiktiv realisiert wird, ist in der Regel einseitig. Das Tempus des Apodiktivs hängt von vorangehenden tempusbezogenen Modi ab, z.B. dem Indikativ, Retrospektiv und Präsumptiv. Der apodiktive Ausdruck wird da verwendet, wo der Sprechende die Sachverhalte allgemeingültig bzw. entscheidend einschätzt und dann den Hörer darauf konzentrieren läßt. Deshalb in den apodiktiven Sätzen dürfen die bestätigung- bzw. verstärkungbezogenen, sogenannten modalen Adverbien wie *bestimmt*, *natürlich* usw. mitverwendet werden.

3. Der Assertiv *kō* und *ō*, die auch das morphologische Merkmal der Verba besitzen, werden in Deklarativ, Interrogativ, Imperativ, konjunkionaler und attributiver Form identifiziert. Die Endungen mit Formen *kō/ō* in den übrigen Umgebungen dürfen nicht als Apodiktiv angesehen werden; denn sie enthalten keine entsprechenden Formen hinsichtlich der syntagmatischen sowie paradigmatischen Relationen. Die kommunikative Funktion des Assertivs ist beinahe einseitig im Vergleich zum Apodiktiv. Sein Tempus hängt von der Aktionsart des Verbs ab. Wenn er mit dem Präsumptiv *li* kombiniert wird, wird sein Tempus mit diesem Ausdruck bezeichnet. Die semantische Eigenschaft muß sich auf die Einschätzung des Sprechenden zum Aussagen beziehen. Der Assertiv wird meistens dafür benutzt, wo der Sprechende die Sachverhalte entscheidend bzw. bestimmt einschätzen und dann sich vergewissern will. Daher kann man in solchen

Texten die einschätzungbezogenen Adverbien wie *freilich*, *allerdings* anwenden.

#### 4. Exklamativ

Die exklamativen Formen im Mittelkoreanischen sind wesentlich komplizierter als die der Gegenwartssprache. Die exklamativen Ausdrücke, die man durch die Identifizierung des Morphems bekommen kann, sind wie die Formen *os//tos*, s. Die Formen *os* und *tos* wechseln einander fakultativ ohne großen Unterschied der Bedeutung ab. Die erstere ist ein bißchen veralteter als die letztere. Da die Form *s* in einigen, bestimmten Umgebungen realisiert wird, kann man sagen, daß sie gegenüber den Formen *os* und *tos* morphologisch bedingt wird. Die exklamativen Formen werden in Deklarativ, Interrogativ, Imperativ und konjunkionalen Endungen representiert. Diese Formen stehen sowohl nach Indikativ, Retrospektiv, Präsumptiv-Retrospektiv wie direkt nach dem Stamm. Die kommunikative Funktion des Exklamativs ist ziemlich einseitig wie der Assertiv. Dieser Aspekt wird deutlich in den Sätzen ausgedrückt, in denen keine erste Person als Subjekt auftritt. Das Tempus hängt von den vorangehenden, tempusbezogenen Modusausdrücken und der Aktionsart des Verbalstamms ab. In den exklamativen Ausdrücken sind Emotionalität und Modalität enthalten: die Emotionalität wird hauptsächlich in den deklarativen Sätzen ausgedrückt, deren Subjekt keine erste Person ist; die Modalität erscheint meistens in den übrigen Umgebungen. Unter Umständen ist es schwer, die Grenze zwischen die Modalität und Emotionalität zu ziehen. Während sich die Texte mit der Emotionalität mit emotionbezogenen Adverbien wie *erstaunlicherweise*, *bedauerlicherweise* usw. sehr natürlich vertragen, verbinden sich die Texte mit Modalität mit den modalen Adverbien wie in dem Assertiv.

5. Drei Modi, die oben als Apodiktiv, Assertiv und Exklamativ genannt wurden, haben die gemeinsamen Eigentümlichkeiten hinsichtlich des strukturalen, semantischen und pragmatischen Aspekts.

1. Struktural kommen sie grundsätzlich nach den tempusbezogenen Modi;
2. Semantisch drücken sie die Modalität und Emotionalität des Sprechenden zum Aussagen bzw. Geschehen aus;
3. Pragmatisch erscheinen sie in der einseitigen Kommunikation.

Auf Grund der obengenannten drei Punkte fasse ich drei Modiformen unter dem **I n t e n s i v e n M o d u s** zusammen.